

GYEONGNAM MECENAT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_____ Vol. **32**



경남메세나협회
GYEONGNAM MECENAT ASSOCIATION

2021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

경남메세나협회는 민간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도내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를 열고 있다. 사진은 2021년 9월 창원 3·15아트센터 대극장에서 피아니스트 이주은, 바이올리니스트 김덕우, 첼리스트 최경은이 완벽한 호흡으로 L. v. 베토벤의 ‘트리플 콘체르토’를 연주하는 모습이다. 2022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에서는 더 많은 관객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CONTENTS

메세나칼럼	02	가치 있는 지역 문화, 분권과 자치로 이루어야
스페셜테마	06	기후위기의 시대, 문화예술의 가치에 주목할 때
아름다운 동행	10	예술로 의술로, ‘함께 사는 삶’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 청담한의원 × 큰들문화예술센터
	14	창원 단풍거리, 가을을 물들이는 예술의 힘 - LG전자 × 창원예총
메세나인터뷰	18	영광산업(주) 조우성 회장
	22	김해 당당한방병원 서종길 원장
포토포엠	26	그린란드 일루리샷트의 빙하 천국 - PHOTO by 전강용
문화공간	28	음악 감상실, 나만의 음악 세계에 빠져들다 - 푸른 바닷가, 소리로 가득 찬 공간, 남해 엘림마리나 앤 리조트 ‘아날로그홀’ - 음악 낙원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뮤직 파라디소 -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음악과 추억을 지키다, 해거름
메세나소식	34	2021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
	36	2021 경남메세나대회
	42	LH 아트 프렌즈
	43	경남메세나협회 문화나눔사업
	44	부산메세나협회 공식 출범
인조이컬처	46	모던 라이프와 컨템포러리 아트

Decentralization of Culture



출처: friche la belle de mai

가치 있는 지역 문화 분권과 자치로 이루어야

문화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는 것일까. 전통 문화 몇 개만 소환해 봐도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얼마든지 가늠할 수 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오래 전에 문화분권, 문화자치를 경험했음은지도 모른다. 설날 아침 어른에게 큰절하고 세뱃돈을 받는 문화는 누가 만들었을까, 복조리를 만들고 야광귀를 막아야 한다면 눈이 가는 체를 문 옆에 걸어두던 풍속은 또 누가 만들었을까. 정월대보름날 달집을 태우고 소원을 빌고 줄다리기하던 일들은, 정월 초하루부터 대보름까지 언덕에 올라 연을 날리던 놀이는 또 누가 만들었나. 집집이 돌며 안경을 빌어주는 지신밟기는, 지역마다 비슷한 듯 다른 오광대 탈놀이는, 단옷날 창포로 머리감고 씨름하는 풍습은 또 누가 만들었나.

많은 사람이 잊어버린, 또는 잊어버려서 없어져버린 문화가 손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지만 문화라는 것이 정책이라는 모자를 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의 출생 배경은 자연발생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 자연스레 만들어진 것, 그래서 사회공동체가 함께 즐기며 향유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문화가 아닐까.

문화라는 것이 권력에 의해 강제되면 기형화할 수밖에 없다. 국가 권력이 문화를 의도적으로 조정하기 시작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정부 때 시행했던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예술인들을 정치 잣대로 들이대 살생부를 만들고 길들이려는 무섭고도 치졸한 횡포. 문화 권력이 특정 세력에 집중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 아닐 수 없다.

바람직하고도 가치 있는 문화는 그 지역의 많은 사람이 스스로 참여하고 그리하여 형성된 공동체 인식이 잘 반영된 문화일 것이다. 그래야 오래 지속하게 되고 나중에는 전통이 된다. 제대로 된

문화분권과 진정한 문화 자치가 바람직한 지역 문화를 만든다는 상식이 실현되려면 어떤 노력이 뒤따라야 할까.

문화분권, 그게 대체 무엇이기에

지난해 창원을 비롯한 경남 여러 도시는 ‘이건희 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문제로 시골벽적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소장 예술품이 정부에 기증되고 그 예술품들을 보관 전시할 미술관을 짓겠다고 했을 때 전국의 여러 도시가 유치 타당성을 내세우며 경쟁을 벌였다. 그러다 결국 서울에 짓는 것으로 결정이 나자 문화분권에 역행한다며 수많은 지역의 인사들이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수도권에 정치 경제 문화가 집중되어 있어 ‘지방소멸’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히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가 권력을 더욱 분산하고자 지방자치법마저 전부개정한 대한민국의 오늘날에도 여전히 굵직한 문화자산이 또 서울에 들어감으로써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부추긴다.

문화분권이라는 말은 그래서 생겨났다. 1988년 지방자치법이 생겨 제대로 각 지역이 자치권한을 가지고 자치단체가 운영되는가 싶었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대부분의 큰 권력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문화 권력은 신경을 쓰는 사람조차 별로 없었다. 어쩌면 1월 13일부터 시행된 전면 개정 지방자치법이 문화분권을 더욱 강화하고 진정한 자치를 위한 비빌 언덕이 되어줄지 기대된다.

경남의 문화 예산 수준은, 또 중앙 의존도는

2020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서 드러난 경남의 문화예술 산업의 예산 규모는 총 예산 9조 4747억 원 중에 문화관광체육에 30870억 원(3.25%), 이중에 또 문화예술 산업에 배정된 예산은 648억 원(0.68%)에 불과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6위에 해당한다. 여기에 더 놀라운 것은 예산의 절반 이상이 자치단체가 아닌 국비, 즉 중앙의 돈이라는 얘기다. 좋게 말하면 지방정부가 국비를 잘 획득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반대로 자치단체가 지역의 문화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경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분권을 위해 제대로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기도 하다.

이 지적은 2020년 12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주최한 ‘문화자치, 문화분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역의 과제’라는 주제의 온라인 정책세미나에서 나온 것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문화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분권의 개념이 광역을 넘어 기초지자체까지 적용되어야 하고 기초 단위의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지자체와 지역문화재단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책 세미나는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지 잘 보여주었다. 문화분권, 문화자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역 사회를 주민들이 살 만한 곳으로 바꾸기 위함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 색깔을 찾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변화를 꿰뚫어 보고 사회변화의 흐름에 맞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자치의 성공적인 사례들

2018년 충북MBC가 방송한 ‘지역독립선언’에 외국의 여러 문화자치 성공사례가 소개되었다. 진정한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를 위해 어떤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지 잘 보여준다 하겠다. 먼저 프랑스 마르세유. 마르세유는 200년 넘게 도시를 지탱해오던 담배공장이 망하면서 사람들이 떠나고 버려진 땅이 되었다. 하지만 폐쇄됐던 그 담배공장이 주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주어지고 주민과 예술가들이 모여 그곳을 문화공간으로 만들었다.

그곳 주민의 인터뷰가 인상깊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멋진 장소를 보세요. 프리쉬센터의 루프탑 테라스에서는 마르세유 도시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죠. 이 장소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늘 좋은 분위기와 음악이 있죠. 마르세유에 이런 장소가 있고 매년 진화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점점 더 많은 예술적 표현들을 만들어내고 에너지가 넘쳐흐르는 프리쉬센터는 언제나 우리들의 흥미를 자극합니다.”

주민이 참여하며 공간을 만들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언제나 흥미를 자극하는 곳이 되었던 것이다. 버려진 기차역을 재생해 현대미술관으로 만든 프리쉬 라 벨드 메도 문화예술인들이 만든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다. 이는 1982년부터 지방분권 개혁이 이루어졌고 30년 동안 시민이 권력을 지켜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 하나의 성공사례로 스위스의 베른 주에 있는 인터라켄은 주민이 2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마을을 들 수 있다. 이곳 연간 관광객이 3만 명이나 된다. 이유가 무엇일까. 매년 여름 이곳에는 특별한 연극이 공연되기 때문이다. 자식의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활을 쏘아 맞췄다는 명작동화로 널리 알려진 ‘빌헬름 텔’을 소재로 만든 연극이다. 이 연극에는 마을사람 200명이 모두 배우로 출연하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100년이 넘도록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게 어찌 가능했을까.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와 생활민주주의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주민 의견이 잘 반영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역주민이 빠져서 실패한 문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 통영 동피랑 마을을 들 수 있겠다. 관광지로 각광받으면서 전국의 관광객이 몰려들었는데, 이게 오히려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으로 말미암은 주민들의 저항과 갈등을 빚게 됐다. 그 때문에 100가구 중에 40-50가구가 사생활 침해 등 불편을 호소하며 떠났다고 한다.

건강한 지역 문화 생태계, 자생력 통해서만 가능

앞서 언급한 외국이 사례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성공적인 도시재생 등 지역 문화의 성공신화 배경에는 주민 참여를 통한 오랜 시간의 발효과정이 있었다. 주민이 좋아서 참여하고 그러다가 그것이 바깥으로 확산해 관광객이 찾아오고 지속가능한 문화로서의 생명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건강한 생태계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지역문화진흥법이나 올해 시행된 전면 개정 지방자치법으로 좀 더 한걸음 나아간 법과 제도에 의해 지역의 문화가 관심을 받고 있다. 사실 문화분권이니 문화자치니 하는 말도 문화계를 넘어 일반 사회에서도 화두가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러한 주제로 논의의 장이 마련되는 것만으로도 큰 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문제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문화분권과 문화자치에 관한 인식과 실천의지다. 지역 예술인의 문화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급하다는 이유로 정작 지역 예술인이 서울의 예술인들의 능력에 기대고 만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선택은 반복될 수밖에 없고 결국 자생력을 가진 생태계는 구축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그게 연극이 됐든 음악이 됐든 또는 무용 등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다. 작품을 올리면서 노래와 춤이 된다는 이유로 서울 혹은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배우들에게 주연·조연을 맡기면 당장은 작품성 높은 공연이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서울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진정한 문화분권·문화자치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멀리 보고 천천히 걸어가야 한다. 문화는 단박에 생산되는 공산품이 아니다. 당장 서둘더라도 밖으로 고개를 돌려선 안 된다. 아직은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 생활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업으로 활동하는 예술인에게는 기본 소득을 보장받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마중물 성격의 지원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을 소재로 한 콘텐츠가 많이 발굴되어야 한다. 그 지역에만 있는 문화상품은 결국 널리 알려질 수밖에 없고 그게 매력 있는 것이라면 관광 상품으로 충분히 활용될 소지도 크기 때문이다. 통영 벽수굴 등 지역의 여러 문화단체가 지역의 스토리를 담은 콘텐츠를 외국에 소개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 담론 과정에는 주민이 빠져서는 안 된다. 주민이 빠지면 결국 그게 무슨 행사든 간에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문화정책에 민관예술인으로 구성된 거버넌스가 꼭 필요하다. 여기에 문화예술계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지역 기업의 역할이 크다. 예술활동을 위한 지원도 지원이지만 관람문화를 활성화시킬 힘이 기업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지원받고 돈에 맞춰 적절한 규모로 제작하고는 무료로 관람케 하는 행태의 반복은 결코 지역의 예술단체를 발전시킬 수가 없다. 직장인들이, 혹은 일반 시민이 유료로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일 것이다. 지방권력에게 돈이 없으니 중앙권력의 눈치를 봐야했듯이 돈이 없는 예술인들은 돈을 부리는 행정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진정한 문화분권과 문화자치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자생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속의 민주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정 현 수



경남도민일보 문화체육부장

창원문화도시추진위원, 경남연극협회 자문위원

<경남문학> 희곡 신인상(2020)

뮤지컬·연극 10여 편 출연, 극작 및 각색



출처. friche la belle de mai

기후위기의 시대

문화예술의 가치에 주목할 때



나혜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연구원

기후변화와 재난의 일상, 탄소중립 2050

2022년 새해, 미국에서는 대형 산불소식이 들려왔다. 12월 30일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발생한 이 산불로 1천 채에 가까운 주택이 소실되었다.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영하 10도의 한파로 또 100여년 동안 조성된 커뮤니티가 붕괴되는 것에 고통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산불의 원인을 기후변화로 지적했다. 기후변화로 지역에 덤불이 확대되었고, 기록적인 가뭄에 강풍이 겹치면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콜로라도주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이번 재난은 '코드 레드'가 감박이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이웃의 붕괴, 나와는 먼 이야기일까? 얼마전 코로나19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출현에 기후변화가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2021.2.5). 케임브리지대학 등 공동 연구진에 따르면 산업화 이후 증가한 온실가스 배출로 박쥐가 선호하는 산림 서식지가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박쥐와 사람 모두 해로운 바이러스에 더 많이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새로운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때문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전(1850-1900년 평균) 대비 1.5℃아래로 제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량과 흡수·제거하는 탄소량을 같게 함으로써 2050년까지 실질적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을 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제 탄소중립은 꼭 이뤄야만 하는 목표가 되었고 우리 정부도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2021.8)'을 제정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선포하였다.

“ 예술은 사람들이 단순히 기후변화를 아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

- Olafur Eliasson, 2020

왜 기후위기 대응에서 문화예술에 주목해야 하는가?

우리 사회에서 문화예술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시도는 활발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국가전략에도 문화전략이 있었지만, 녹색+관광 등 환경과 문화의 표면적·물리적 결합에 초점을 둔 시도였다. 반면 해외에서는 문화예술이 갖는 본연의 의미와 가치에 주목하여 기후위기에의 대응을 모색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왜 기후위기 문제에서 문화예술에 주목할까?

기후위기를 인지하고 감각하는 강력한 방식

문화는 복잡한 기후변화의 개념과 숫자를 예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인지하고 감각하는데 효과적 방식이 될 수 있다.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라는 속담이 있듯이 예술작품은 그래프, 데이터, 보고서보다 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능력이 있다. 사람들은 막연히 알고 있던 기후위기라는 사실보다 예술작품을



1 —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시각적으로 상기시키기 위해 설치된 10일간의 실험적 아트워크 'Ice Watch'(Olafur Eliasson, 2014)
출처: <https://olafureliasson.net/archive/artwork/WEK109190/ice-watch>

통해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이슈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환경에 대한 연민, 죄책감, 책임감 등의 감정을 유발함으로써 행동변화의 동기가 된다. 기후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방법으로서 예술은 전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를 넘어 참여를 촉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발신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의 방법을 찾아가는 실천적·참여적 플랫폼

기후위기 대응에서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문화예술의 잠재력은 '사람을 모으고 소통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다. 문화적 접근은 '기후'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모으고 대화와 참여를 통해 공동의 문제를 고민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문화예술 프로젝트는 어떤 사안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혁신적 방법을 상상하는 공론장이 됨으로써 복잡한 문제를 매력적 방식으로 의제화하고

참여자들과 해결책을 찾아가는 계기를 제공한다. 실제 사례로 지역사회 구성원과 전문가들이 지역의 기후변화를 인식하고 회복탄력성 방안을 모색한 '플로리다 HighWaterLine' 프로젝트가 있다.



이 사업은 미국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의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로, 지역 예술가가 기획한 솔루션 중심 워크숍에서 역사학자들은 지역의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을 아카이빙하고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침수가능 경로를 개발하며 지역 주민들은 공동체 이야기와 해결책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였다. 특히 이 지역의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주민들이 기후변화로 침수되거나 잠길 수 있는 경로에 선을 그음으로써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고 기후문제를 공유·소통할 수 있도록 영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지역 사회에서 기후문제를 자연스럽게 이슈화하고 공동체와 공공부문이 기후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 1 ____ 현대 음악의 거장 루도비코 에이나오디와 그린피스가 함께한 퍼포먼스<Elegy for the Arctic 북극을 위한 애도, 2016>
출처: <http://greendates.com.mx/pianista-eunadi-toca-en-el-artico-save-the-artic-greenpeace/>
- 2 ____ 작은 얼음으로 만들어진 사람 조각을 도심 한복판에 설치하여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문제에 직면하게 될 우리의 미래를, 그 속에서 사라져버릴 생명의 가치를 제시하는 작품 'Melting Men(Nele Azevedo, 2009)'
출처: <https://magazine-k.tistory.com/166>
- 3 ____ 지역사회 구성원과 전문가들이 지역의 기후변화를 인식하고 회복탄력성 방안을 모색한 '플로리다 HighWaterLine' 프로젝트(2017)
출처: <https://highwaterline.org/>
- 4 ____ 영국 문화예술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활동을 펼치는 비영리 컨설팅 단체 '줄리의 자전거(Julie's Bicycle, 2019-20)'
출처: <https://www.artscouncil.org.uk/>

사례에서 보듯 기후위기 대응에서 문화예술적 접근은 기존 사회참여 전략(사실과 정보전달 위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협업을 통해 혁신적 해결책을 찾는 새로운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을 추동하는 문화예술의 가치'에 주목하여 유럽연합에서는 그린딜(Green Deal)의 문화적 차원으로 뉴바우하우스(미래를 상상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예술+비예술의 협업을 촉진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했고(2021.1.18),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등에서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창의적·혁신적 방법을 찾아가는 문화적 적응(Cultural Adaptation) 사업을 추진 중이다.

문화예술부문의 탄소중립 참여

문화예술 시설운영, 조직(단체)운영, 예술활동 전 분야에서 실제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개인 또는 단체가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탄소의 총량)이 존재함에 따라, 국제적·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Net Zero) 정책이 문화예술부문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예술위원회(Arts The Arts Council England, ACE)의 문화예술분야 탄소발자국 측정결과에 따르면, 문화시설(건물), 사무실 운영, 이동, 창·제작, 이벤트 순으로 탄소배출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부문별·장르별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 영국의 로열 코트 씨어터(Royal Court Theatre)는 탄소중립 공연장으로서의 전환 계획을 발표했고(2019.10), 네덜란드 전자음악 페스티벌(DGTL Festival)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용, 쓰레기 배출 최소화, 채식 섭취 등 Green Festival 요소를 적용하고 있다.



문화예술계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로 ACE의 환경 프로그램(Environmental Programme)이 있다. ACE는 일찍부터 기금지원 조건으로 환경계획 수립과 성과보고를 도입하고(2012) 환경부문 컨설팅, 멘토링, 네트워킹, 정보공유 등의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부문의 환경역량을 높이고자 했다. ACE는 2030전략에서도 투자의 4대 원칙에 환경책임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환경성과보고 대상 기관(단체)들은 이러한 지원이 문화예술부문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떤 문화예술지원 정책이 필요한가?

기후위기의 긴급성과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와 달리 이러한 조치들에 대중을 참여시키기 위한 최선의 접근법, 즉 문화예술적 접근을 지원하는 정책은 거의 공백상태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전환을 실현하는 동력으로 문화적 접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기후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방법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에 지원하는 것이다. 기후축제, 커뮤니티 아트 등 기후 아젠다의 시민과 접촉면을 넓히는 활동은 기후문제에 관심이 없는 이들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기후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지역의 기후변화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플랫폼으로서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양한 공동체 거점에서 진행되는 주민 참여형 기후-예술 프로젝트는 개인, 공동체 그리고 지역적 수준에서 기후 이슈에 관심을 갖고 사회가 바람직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참여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셋째, 문화예술부문의 탄소중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앞서 해외사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문화예술에 적용될 수 있는 탄소발자국 측정 툴이나 가이드라인 등 탄소중립에 참여하고 싶어도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정보도, 탄소중립에 필요한 추가비용 지원도 거의 부재한 상태다. 문화예술계가 자발적으로 탄소중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반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류는 이전과 다른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 방향 설정의 어려움에도 분명한 것은 앞으로 기후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탄소중립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뉴노멀과 포스트코로나를 고민하는 지금, 기후-예술의 가치와 역할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01

청담한의원
× 큰들문화
예술센터

예술로 의술로

‘함께 사는 삶’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이라는 큰 틀에서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도 필요하고 평범한 삶에 느낌표를 달아줄 문화예술도 필요하다. 마당극으로 세상에 감동을 전하는 큰들문화예술센터(극단큰들)와 사랑과 봉사정신으로 인술을 펼치는 청담한의원 김명철 원장은 하는 일은 다르지만 ‘함께 사는 삶’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다. 누군가는 예술로, 또 누군가는 의술로 세상을 비추면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두 단체를 만났다.



자연이 무대가 된 특별한 공연

지난 2021년 9월 4일과 11일 이틀간 산청읍 산청마당극 마을에서 극단큰들의 37주년 정기공연이 펼쳐졌다. 극단큰들은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관객들과 만나 신명 나게 놀 기회가 없었던 터라, 정기공연을 준비하는 내내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드디어 공연이 펼쳐지던 날, 조용하던 산청마당극 마을에 오랜만에 사람들의 발길이 모여들었다. 오늘은 마을이 무대가 되고 객석이 되는 특별한 날. 극단큰들이 준비한 특별공연은 음향과 조명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밤하늘의 별빛과 달빛, 산허리에 수놓은 초롱 등불, 가을밤의 풀벌레 소리 등 자연 그대로의 빛과 소리를 이용한 작품이다. 산청마당극 마을이 가진 자연적인 요소를 활용해 마을과 마을을 감싸고 있는 뒷산을 무대로 폭넓게 활용한 실험적인 공연이었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이날 무대는 관객들의 평범한 삶에 신선한 느낌표를 던져주기에 충분했다.

객석에서 이 무대를 관람한 김명철 원장은 큰 박수로 극단 큰들을 응원했다. 그동안 큰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이 소중한 무대를 완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힘을 써 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선선한 가을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뒷산에는 초롱불이 반짝거렸어요. 무엇보다 마이크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울려 퍼진 아리랑 노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색다른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극단큰들이 코로나 시국에도 공연을 멈추지 않고 이렇게 특별한 공연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18년 전 처음 인연을 맺은 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원해 준 김 원장의 도움이 컸다. 오랫동안 후원회원으로 힘을 보탰고 공연이 있을 때마다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가끔은 단원들과 맛난 밥을 함께 먹으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8년부터는 경남메세나협회 매칭펀드를 함께하며 극단큰들에게 더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었다.

“그동안 공연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든든히 지원해 주셨어요. 게다가 매칭펀드까지 흔쾌히 도와주셔서, 저희가 새로운 공연을 기획하고 특별한 시도를 하는 데 주저 없이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극단큰들의 꿈이 모여 ‘산청 마당극 마을’이 되다

자연이 무대가 된 특별한 공연이 펼쳐진 이곳은 바로 산청마당극 마을. 산청읍에서 굽이진 길을 따라 한참 들어가야 하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야산이었던 이곳에 2019년 10월 25일 ‘산청마당극 마을’이라는 이정표가 들어섰다. 이곳은 극단큰들이 오랫동안 꿈꾸던 공동체의 삶이 이뤄지는 곳이다.

1 ____ (좌측부터) 큰들문화예술센터 진은주 실장, 청담한의원 김명철 원장, 큰들문화 예술센터 이규희 대표

2 ____ 큰들의 예술수업을 들은 김 원장(가운데)은 가끔 공연에 함께 출연하기도 한다

“다 같이 살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연습하면 어떻게 하고 늘 생각했었어요. 그러다 산청에 터를 잡았고 산청군과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극단 후원회원들과 단원들의 노력으로 이 마을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2만 평 규모로 조성된 산청마당극마을은 30동의 거주공간과 다목적 복합 공간, 미술 작업실, 야외무대 등이 조성돼 있다. 이곳에서 극단원들 단원들은 함께 밥을 먹고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하면서 멋진 무대를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관용구처럼 ‘한술밥을 먹는 사이’이자 진짜 ‘식구’가 되었다는 뜻이다.

“서로 힘을 모아 마을을 꾸리고 함께 살아가니 정말 좋아요. 연습장에 찾아가는 시간도 줄이고 식사 준비 시간도 줄일 수 있고요. 또 육아도 함께 하니 편하고, 무엇보다 연습에만 몰두할 수 있어서 공연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공동체 생활을 꿈꾸지만 현실적인 벽 앞에서 꿈을 놓기 일쑤. 하지만 극단원들은 그 어려운 일을 해내면서 행복한 예술마을을 가꾸어가고 있다.

“같이 살아가는 게 가장 큰 행복이죠. 또 우리가 만든 공연을 관객 여러분께서 좋아해 주시니 공연을 만드는 것도 즐겁습니다. 또 코로나로 어려울 때 단원들과 함께 모여 사니,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어려움을 헤쳐나갈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중입니다.”

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들

극단원들과 김명철 원장 사이에는 닮은 점이 있다. 바로 ‘공동체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 김 원장 역시 대학 시절 친구들과 만든 모임을 통해 대안학교를 만들고 다 같이 모여 사는 공동체 생활을 꿈꿔왔다.

“제가 대안학교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제천 간디학교 이사장을 20년 동안 해오면서 꿈을 이룬 셈입니다. 또 지금 제가 사는 마을에 같은 꿈을 꾸던 다섯 가정이 모여서 살고 있으니 공동체 생활도 실천하고 있는 셈이지요.”

공동체적 삶을 꿈꾸는 김 원장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나눔에도 적극적이어서 한의대 재학시절 소록도에서 한센인 의료 봉사를 시작했다. 이후 2001년 산청으로 새롭게 동지를 틀면서 지역 소재 성심원에서 지금까지 28년 동안 한센인을 위한 의료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2021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최고상인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기도 했다. 또 앞으로 지역주민과 의료진이 협동하여 우리 가족과 이웃의 건강, 생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1 ____ 예술과 삶의 공동체를 함께 꾸려가는 큰들문화예술센터 사람들

2 ____ 산청 마당극마을 전경



2

지역민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김 원장과 극단원들이 인연을 맺으면서 어려운 길을 함께 가는 든든한 벗이 되어주고 있다. 김 원장은 산청에 터를 잡은 후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어르신을 위한 건강강좌를 시작했다. 이후 인문학 강좌로 확장하면서, 강좌에서 인연을 맺은 사람들과 함께 지역민을 위한 베틀시장인 ‘산청 지리산 목화장터’를 설립했다. 목화장터는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수제품을 판매하는 장터로, 한 달에 두 번 장이 선다. 이중 한번은 제대로 된 음향시설과 무대를 만들어 지역민에게 문화예술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극단원들도 목화장터 무대에 올라 지역민들과 신명 나는 놀이 한판을 벌였다. 또 극단원들의 예술 수업을 들은 지역민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사물놀이와 마당극을 펼치기도 했다. 김 원장도 무대에서 ‘의원’ 역할을 맡아 실감나는 연기를 펼쳤다.

“지역문화예술사업을 통해 산청의 이야기를 담은 ‘효자전’을 주민들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술교육을 통해 예술단체와 지역민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김 원장은 산청어울림합창단을 만들어 3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고 바둑 모임, ‘아빠가 요리한데이’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산청 문화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합창을 할 때 소리가 잘 맞춰지면 정말 희열을 느끼잖아요. 그런 희열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면 삶이 좀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산청을 문화예술이 가득한 지역으로 만들어나가고 싶습니다.”

좋은 벗이자 좋은 이웃으로

극단원들이 무대를 펼칠 때마다 김 원장은 무대 하나하나마다 우렁찬 목소리로 “제일 낫다!”라고 외치곤 한다. 그 외침 덕분에 단원들은 절로 힘이 솟는다고 이처럼 김 원장은 극단원들에게 좋은 후원자이기도 하지만 누구보다 좋은 관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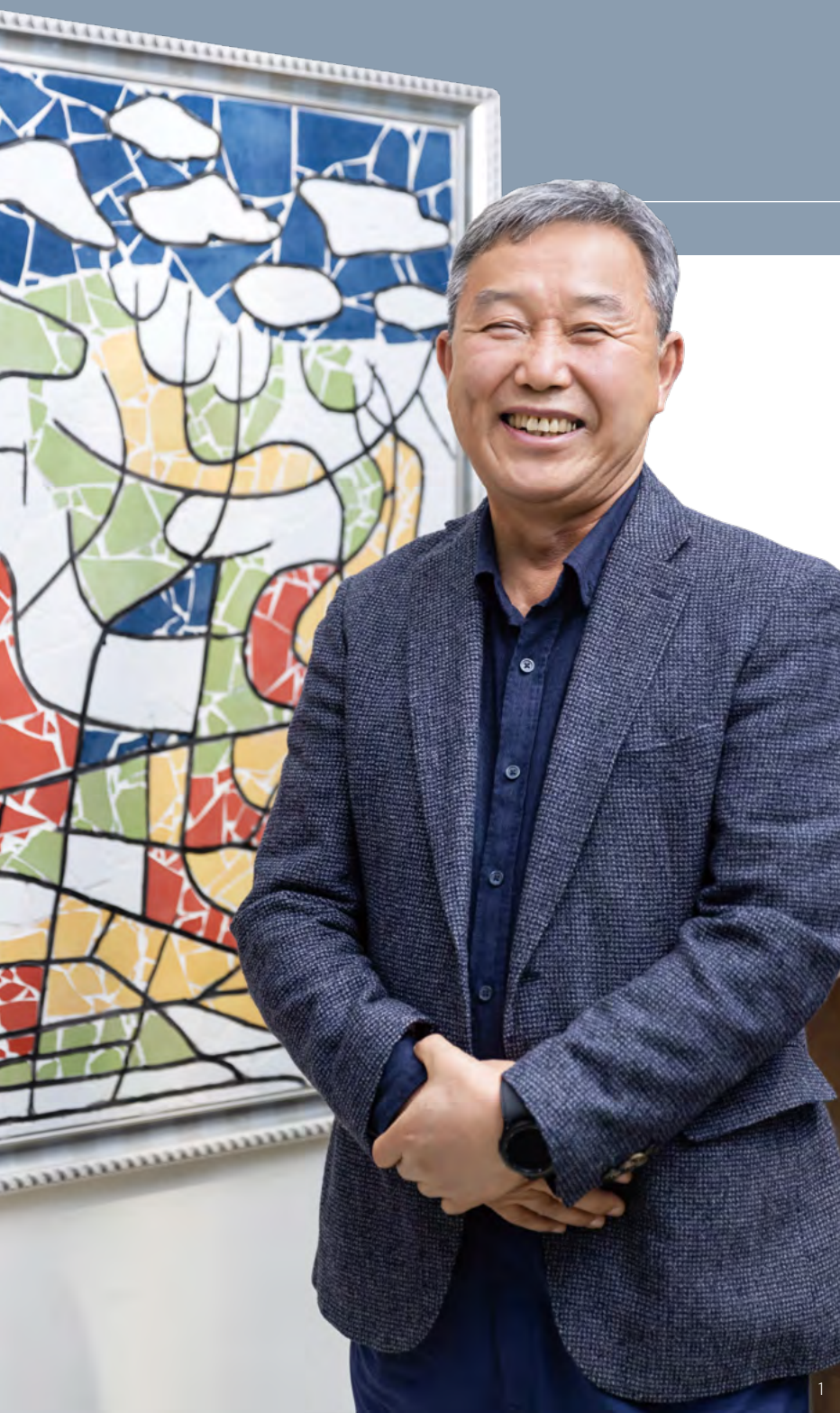
“문화예술 단체가 어렵다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그런데 극단원들은 결핍을 결핍으로 느끼지 않고 늘 마음이 풍족한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 산청마당극마을에서 재미나게 살면서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문화예술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극단원들의 뜻을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일까. 극단원들은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우리 마당극의 진면모를 선보이며 더 높이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저희도 원장님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지지하고 응원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벗으로, 좋은 이웃으로 지금처럼 서로를 응원하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청을
문화예술이 가득한 지역으로
만들어나가고 싶습니다.”

02



LG전자 × 창원예총

창원 단풍거리 가을을 물들이는 예술의 힘

거리에 울긋불긋 단풍이 들면 LG전자와 창원예총이 함께 만드는 '창원 단풍거리 축전'이 열릴 때가 됐다는 뜻이다.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가을이면 성산아트홀 주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가 펼쳐진다. 특히 지난해 가을 펼쳐진 제17회 창원 단풍거리 축전은 창원이 진정한 문화예술 도시로 가고 있음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기계 소리 가득한 창원에 이만큼 예술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건, 매년 가을 지나는 사람의 발길을 붙잡는 문화예술 무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창원을 대표하는 기업과 예술단체의 만남

창원을 대표하는 기업 'LG전자'와 창원을 대표하는 예술단체 '창원예총'이 만나 창원시민들에게 문화의 향기를 전하고 있다. LG전자는 1976년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이래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예술 공연, 문화재 보존 활동, 저소득층 지원, 재능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며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지역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LG전자는 지난 2004년 시민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창원예총이 만드는 창원 단풍거리 축전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시작된 인연은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LG전자 류재철 H&A사업본부장은 단순히 좋은 일자리,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문화 발전에도 힘을 보태는 것이 기업의 역할이라는 생각으로 문화예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단풍거리 축전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추억과 낭만을 선사하고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창작활동을 지원하면서 창원시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축전을 통해 지친 마음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자연이 만들어낸 단풍과 예술인 여러분이 만들어낸 작품을 함께 느끼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 1 ____ 창원예총 김대환 회장
- 2 ____ LG전자와 창원예총은 2004년부터 꾸준히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고 있다
- 3 ____ 2021 창원 단풍거리 축전 오케스트라 공연

코로나19 딛고 새로워진 문화예술 축제

창원 단풍거리 축전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한해 쉬어야 했지만, 2021년 워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다시금 축제를 이어갔다. 창원예총은 한해 쉬었던 만큼 쇄신을 거듭해 2021년 제17회 창원 단풍거리 축전을 더욱 새롭게 만들었다.

특히 2021년부터는 한국메세나협회를 통해 창원예총과 LG전자가 매칭펀드를 맺게 되면서, 기업 지원금에 매칭 지원금까지 더해 어느 때보다 풍성한 무대를 꾸밀 수 있었다. 창원예총 김대환 회장은 매칭펀드를 계기로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를 만들고자 고민을 거듭했다.

“그동안의 축전은 시민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어 하는 무대이기 보다는 창원예총이 하고 싶어 하는 무대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시민들과 함께 즐길 무대를 꾸미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단풍거리축전

창원예총의 고민과 노력이 통해하였을까. 지난 2021년 11월 20일 토요일에 펼쳐진 ‘제17회 창원 단풍거리 축전’은 어느 때보다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축제를 자유롭게 즐겼다. 오후 1시에는 창원국악협회, 창원무용협회, 창원연예협회가 꾸미는 ‘창원 단풍예술제가 펼쳐졌고, 곧이어 인디밴드의 공연 ‘막樂락 콘서트’가 무대를 꾸몄다.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지면서 시민들은 ‘보고 싶은 공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오후 5시부터 시작된 개막식에는 창원시립가을어린이집 어린이들의 축하무대에 이어 60인조 오케스트라가 준비한 단풍축전기념음악회가 펼쳐져 큰 박수를 받았다. 야외무대에서 선보인 거대한 오케스트라 공연은 예사량 색소폰과의 앙상블, 피아노 협연 등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는 물론 신선한 감동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방역수칙 상 99명까지만 객석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객석 바깥에서 지켜봐 주셨습니다. 관객들께서 가을밤 울려 퍼지는 오케스트라의 향연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해주셔서 저희도 무척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시화전도 새로워졌다. 그동안 군데군데 전시하던 것을 한곳으로 모아 풍경 사진과 그림, 시화작품을 한 번에 감상할 수 있는 ‘시와 풍경이 있는 단풍갤러리’를 만들었다. 이번 단풍축전에서는 작품을 하나하나 감상하며 문화예술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캐리커처와 페이스페인팅, 팔찌와 배지 만들기, 투호와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같은 그림 찾기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는 가족 단위의 관람객에게 특히 많은 사랑을 받았다. 체험 부스 미션을 모두 완료하면 솜사탕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누구보다 아이들이 가장 기뻐했다.

“개막식 무대를 빛내 준 어린이집 아이들이나 이벤트 참여로 솜사탕을 받은 친구들이 이번 축전 참여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창원 문화예술을 즐기는 훌륭한 관객이 되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이 커가면서 문화를 더 즐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점점 창원이 문화예술을 즐기는 도시가 되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펼쳐지는 창원의 문화축제는 창원이 문화도시로 가는 지름길”



문화로 기업과 교류하다

그동안 창원예총은 기업의 지원금으로 축제를 만들어왔지만, 이렇다 할 교류 활동은 부족했다. 행사장에 LG전자 홍보부스를 만들고 무대에 LG전자 직원들이 참가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정도였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LG전자 직원들이 예술 창작의 기쁨을 발견하고 이를 좋은 동력으로 삼아 예술이 있는 삶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행사장에 ‘LG 사원 작품전시’를 진행했다. 촉박한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직원이 관심을 갖고 취미활동으로 찍은 사진과 작품을 출품하면서 축전을 더욱 풍성하게 꾸며주었다.

“그동안 LG전자에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창원시민의 문화적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창원예총에서도 좀 나누면서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일이 문화예술만큼 문화예술로 기업과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류의 일환으로 창원예총의 예술작품을 LG스마트파크 로비에 전시해 사원들이 휴식 시간에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갤러리’ 사업도 진행했다. 찾아가는 갤러리로 교류의 첫 물꼬를 텃으니,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공연과 음악 등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예술 교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창원예총에서 좋은 작품을 보내 주셔서 사원들이 일하는 틈틈이 좋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딱딱한 회사 로비가 문화공간으로 바뀐 것을 보고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이렇게



교류의 첫발을 내딛며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LG전자 임직원들도 예총과 함께 문화예술을 즐길 줄 아는 창원시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문화예술의 씨앗을 심다

이제 창원 단풍거리 축전은 경남을 대표하는 지역 축제가 됐다. 창원예총이 흠이 되고 LG전자가 거름을 주었으며, 시민들이 모두 하나의 소중한 씨앗이 되어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처럼 기업과 단체의 만남으로 창원시민들은 지친 몸과 마음을 문화예술로 위로받고,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끼며 풍성한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도심 한가운데서 펼쳐지는 창원의 문화축제는 창원이 문화도시로 가는 지름길이 되어줄 것이라 믿는다. 문화도시 창원을 위한 LG전자와 창원예총의 동행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1 ____ 창원을 생활가전의 핵심지로 이끄는 ‘LG스마트파크’ 전경

2 ____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생활 향유가 어려워진 LG전자 직원들을 위해 창원예총이 기획한 <찾아가는 갤러리>

3 ____ LG전자 H&A사업본부 류재철 본부장

음악을 즐기는 것은 내면을 향기롭게 만드는 것

영광산업(주)
조우성 회장



조우성 회장을 직업으로만 말한다면, 그는 조선업을 일궈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영광산업의 회장이고 두 번의 도의원을 하며 경남 발전에 기여한 의원이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누구보다 음악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배워 다른 이들과 나누고자 했다. 무엇보다 예술단체를 든든하게 지원하며 그들의 무대를 힘껏 응원했으니, 그는 이미 문화예술인이 아닐 리 없다. 그를 따라다니던 많은 이름을 사양하고 오로지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이름만 남긴 지금도 여전히 문화예술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조우성 회장을 만났다.

어느 날 음악이 내게로 왔다

조우성 회장은 1995년 영광산업을 설립해 지금까지 조선 산업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옥외 현장에서 여름에는 더위와 싸우고 겨울에는 한파와 싸우며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조우성 회장. 겉으로 보기에 기계와 철을 다루는 딱딱한 경영인 같지만,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한없이 뜨거운 사람이다. 오랫동안 크리스천으로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했고, 이제는 누구보다 문화예술을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

“성가대 활동을 하며 음악을 접하고 합창단으로 활동하면서 무대에도 많이 섰습니다. 남성선교합창단 창단멤버로 활동하면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무대에 섰던 기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교회에서 20여 년간 성가대 지휘자로 봉사하면서 음악 공부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오로지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휘를 시작했지만, 음악을 전공한 것이 아니기에 부족함을 느꼈다. 그때도 한창 영광산업을 이끌며 바쁘게 생활하던 시기였지만, 기독교음악통신대학을 다니며 주경야독으로 음악을 배워 교회음악 지도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이처럼 종교로 접하게 된 음악은 이제 그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한 부분이 되었다.

의정활동으로 문화예술에 힘을 보태다

조우성 회장은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던 중 도의원에 도전했고, 지난 9대, 10대 경남도원으로 활동하며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도민의 지지로 얻은 자리인 만큼 도민이 바라는 경남을 만들고자 노력했고, 특히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많은 목소리를 내주었다. 도의원 재직 당시 경남을 대표하는 예술단체가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공식적인 의정 단상에 올라 도립 교향악단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여러 이유로 도립 교향악단은 불발됐지만, 대신 경남도민예술단이 만들어져 도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 경남메세나협회 도비 지원이 너무 낮게 편성된 것을 파악하고 도비 상향을 위해 목소리를 냈던 적도 있다. 덕분에 기존 경남메세나협회 도비 지원이 많이 상향되면서 도내 예술단체들이 더욱더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1 __ 영광산업(주) 조우성 회장
2 __ 영광산업(주)과 매칭펀드 결연을 맺은 로람플룻앙상블



문화예술 나눔의 시작, 창원시윈드오케스트라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한다는 것은 기업이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업과 더불어 지역이 성장하고, 지역과 더불어 기업이 성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사회가 되려면 문화예술이 앞장서야 하고, 기업도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직접 무대에 섰던 경험이 있어서일까. 그는 경남 문화예술 발전에 힘이 되고자 메세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내 예술단체들의 어려움을 접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때 만난 단체가 바로 경남을 대표하는 관악단체인 ‘창원시윈드오케스트라’였다.

“우연히 창원시윈드오케스트라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음악 활동을 이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술단체 힘든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때 우리 회사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나라도 힘을 보태야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조우성 회장은 2012년 창원시윈드오케스트라 단장으로 위촉되면서 매칭펀드로 예술단체를 후원하기 시작했고,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벌써 10년째 결연이 계속되고 있다. 창원시윈드오케스트라는 영광산업의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315아트센터에서 창립 40주년 기념음악회를 성대하게 개최하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기도 했다. 이 밖에도 창원시윈드오케스트라는 정기연주회와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장애인을 위한 음악회, 합포만 음악제, 돌섬 야외음악제 등 각종 초청 연주회 및 순회연주회를 열어 지역민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있다.

음악의 향기를 채우는 삶

그의 지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전국 최초의 여성합창단인 마산여성합창단이 50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후원에 힘입어 합창단은 거제전국합창대회 은상, 싱가포르 국제합창대회 금상을 수상하며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이후 영광산업이 합창단을 지속해서 후원할 수 없게 되자, 합창단을 다른 기업과 연결해 주면서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지난 2018년부터는 로람플룻앙상블과의 결연도 시작했다. 로람플룻앙상블은 요양병원 위문 공연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누구나 문화를 즐기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조우성 회장은 이처럼 다양한 방면으로 음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음악 협회가 주최하는 ‘2018 한국음악상’ 시상식에서 특별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담이불염(淡而不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담담하되 싫증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내면을 갈고 닦을 때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삶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어쩌면 음악을 즐기는 것도 내면을 향기롭게 하는 하나의 길이 아닐까요? 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여러분의 삶도 향기롭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의 힘을 믿는 진정한 음악인

그는 이제 욕심을 모두 내어주고 현역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버리지 못한 이름들이 있다.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힘을 보태고 있으며 전·현직 도의원이 힘을 모아 경남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경상남도의회 회장을 맡아 일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인구정책과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는 인구보건 복지협회 경남지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사회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창원극동포럼회장도 역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창원시윈드오케스트라 단장이자 후원자이며, 로람플룻 앙상블의 단장이자 후원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을 사랑하는 음악인이고, 문화예술의 감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진정한 문화예술인이다. 지금도 사무실에 색소폰을 두고 틈이 날 때마다 연습하고 있다. 언젠가 실력이 더 좋아지면 그가 단장으로 있는 창원시윈드오케스트라의 정식 단원으로 무대에 서게 될 날을 꿈꾸고 있다.

“언젠가 전국의 극동방송 합창단 600여 명이 창원실내체육관에서 광복절 기념 나라사랑 평화음악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아이들의 순수한 목소리가 무대를 가득 채우는데, 그 감동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문화예술의 힘이고, 그건 문화예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감동의 순간을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은 분들이 문화로, 예술로 감동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 & 2 ____ 전남 광양에 위치한 영광산업㈜ 전경

3 ____ 영광산업(주)의 꾸준한 후원을 바탕으로 창단 40주년을 맞은 창원시윈드오케스트라의 40주년 기념음악회(2021) 공연 모습

가야오페라단의 미소 천사 후원회장

음악사랑 실천하는 찐 음악애호가

김해 당당한방병원 서종길 원장

음악애호가(音樂愛好家). 말 그대로 음악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나 집단을 말한다. 하지만 단순히 음악을 듣고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음악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실천하는 이가 있다. 마냥 음악이 좋아서, 마냥 음악하는 그들이 좋아서 기꺼이 손잡아주며 동행하는 사람……. 가야오페라단, 가야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진정한 음악 애호가, 김해 당당한방병원 서종길 원장을 만났다.

1 ____ 김해 당당한방병원 서종길 원장

2 ____ 가야오페라단 2021년 정기공연 <세빌리아의 이발사>



지난해 10월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 무대가 화려하게 빛났다. 2008년에 창단한 가야오페라단이 해마다 꾸준하게 선보이고 있는 오페라무대가 코로나19라는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공리에 공연된 것이다. 객석과 무대는 함성과 환희로 가득 찼다. 수많은 연주자와 성악가, 무대를 만들어 낸 여러 스태프에게는 지역 오페라단이라는 한계를 이기고 또 한 번 해냈다는 뿌듯함과 자신감이 벅차오르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 특별한 감동의 순간을 함께 한 이가 있다. 바로 메세나 매칭 펀드를 통해 가야오페라단과 오페라무대에서 음악연주를 담당하는 가야심포니오케스트라를 매칭 후원하고 있는 김해 당당한방병원 서종길 원장이다. 좋은 인연의 시작은 위기 속에서 싹트기 마련...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그의 용기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Q 가야오페라단, 가야심포니오케스트라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가야오페라단 강동민 단장과 다른 자리를 통해 인연을 맺게 됐는데, 음악에 대한 상당한 열정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저 역시도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 자연히 강 단장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됐고요, 그 열정을 아니까 아, 내가 상황이 되면 도와줘야겠다'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마음을 눈치챈 건지, 어느날 찾아와서 손을 내밀더라고요.

Q 원장님도 꽤나 어려웠던 시기였다고 들었습니다. 오페라단이라 후원 규모도 다른 예술단체에 비해 꽤 컸을 텐데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창 병원을 확장 이전 하던 때라 공사비나 직원 월급 같은 걸 어렵게 감당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원하겠다고 말하려니까 차마 입도 안 떨어졌죠. 마음은 있는데 시기가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참 답답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날 찾아왔을까'.. 라고요. 그때도 지금도 제 사정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후원이라는 건 '의지'로 하는 거니까요, 후원하자. 결심하게 됐습니다.

병원을 확장 이전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를 위한 그림들이 필요할 때면 지역의 작가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면서 그림을 부탁했다. 그리고 크지는 않지만 다른 분야에도 조금씩 도움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으로부터 왜 '그곳'에만 집중해 후원하느냐, 불만 섞인 항의를 받았다. 상당히 입장이 곤란했을 텐데도 다른 봉사 영역이나 후원 단체들의 볼멘소리도 다 이해가 된다며,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 보이는 서종길 원장. 왜 그럴까 스스로 깊이 고민한 결과 그가 찾은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좋아서.' 좋아서였다. 단지 음악이 좋기 때문이다.

Q 자신이 음악을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던 특별한 순간이 있었나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요, 음악이 없는 생활이 계속 됐습니다. 4주 훈련이었는데, 3주쯤 지나고 나니까 훈련을 받으러 멀리 가게 되면서 차를 타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운전하는 친구가 라디오 내지는 테이프를 틀어주는 겁니다. 몇십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때 그 순간의 감동이 생생해요. 유행가 한 곡조가 이렇게 좋다는 걸 알았죠.

전 몰랐는데 음악을 좋아했던가 봐요. 초등학교 다닐 때 6학년 담임 선생님이 오선지 위에 플랫을 붙이는 걸 가르쳐주셨는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달달달 외웠지만 사회 나와서 기타를 조금 배워보니 그 원리를 알겠더라고요. 그 어릴 때 그 시절이 아주 인상적으로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음악을 좋아했을까 뒤돌아 생각해보면 항상 그때가 떠오르죠. 음악을 왜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천성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냥 좋더라고요.

집에서 오디오로 음악 듣는 게 취미인데, 한번은 한의사 후배가 '형님은 왜 차를 안 사고 오디오를 그렇게 사냐고 묻더라고요. 그때도 '난 차보다 오디오가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1

마냥 음악이 좋다며 웃는 서종길 원장. 얼굴 가득 퍼지는 미소가 정말 순수하다. 아마도 좋아하는 사탕을 입에 넣고 행복해하는 아이의 얼굴이 이렇지 않을까... 서종길 원장의 미소된 표정만으로도 '이유 없이 음악이 좋다'는 게 어떤 감정일지 이해가 된다. 가요오페라단의 무대를 보고 난 후에는 나름의 감상평을 슬며시 전한다는 서종길 원장, 수줍음 가득한 그만의 감상평에는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듬뿍 묻어난다고..

Q 해마다 성장하고 있는 가요오페라단의 무대가 놀라운데요, 후원하는 입장에서 무대를 지켜보는 심경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저야 보면서 마냥 좋죠. 매 공연 때마다 정말 후원하길 잘했다 생각합니다. 김해가요오페라단이 세계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가 이런 수준 높은 무대를 만들어냈다는 게 보람되고 가슴 벅차죠. 제가 후원한 단체가 이렇게나 훌륭한 무대를 만들어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내가 전적으로 도운 건 아니지만 내가 참여했다고 생각하니까 무대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좋은 거죠. 지인들도 초대해서 같이 봤는데 괜히 제가 뿌듯하고 자랑스럽더라고요. 주변에 정말 자신감 있게 권할 수 있는 무대니까요.

사실, 음악 좋아하고 또 도와드릴 수 있으면 되겠다고만 생각했지, 처음엔 후원회장을 하면서도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부끄럽게도 2019년도에는 음악회마다 조금씩 늦기도 했어요. 이곳 병원 일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참석해야겠다 마음은 있어도 자꾸 늦었는데 올해부터는 공연 시작하기 최소 30분 전에는 꼭 옵니다.

Q 2020년부터는 후원회장을 맡으셨습니다. 어깨가 무거울 것 같아요?

갈수록 무거워져요. 뭣도 모르고 덜컥 후원회장을 맡았는데 그 뒤로는 책임감으로 이어가고 있죠. 한 사람의 후원자일 때는



1 ____ 가요오페라단 서종길 후원회장(좌)과 강동민 단장(우)

2 ____ 2021 가요오페라단 후원회 밤 <디너음악회>

그냥 하라는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됐는데 후원회장이 되니까 다른 후원자들을 조금 더 리드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15년째 한의사를 하고 있지만 한의학 공부를 다시 하기 전에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관련 회사를 10년 정도 다녔습니다. 학창시절에 밤에 학교에 공부한다고 남아 있으면 뒤쪽 음대 쪽에서 늘 음악소리,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재네들은 행복하겠다' 즐거워 보였고 부러워했는데요,

최근에 후원회장을 하면서 우리 가요오페라단과 가야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좀더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이 실용적인 학문을 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나 잘 못하는 사람이나 밥 먹고 사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오히려 예술가의 세계가 더 편향돼 있다는 걸 알게 됐죠.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예술가들이 그동안의 노력을 많이 보상받지 못하고 있고 고충이 크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좀더 애착을 가지게 됐습니다. 김해라는 지역에 더 애정이 가면서 지역을 더 지원해야겠다는 생각하게 됐죠.

특히나 얼마 전에 열린 '후원회밤 연주회가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말하는 서종길 원장. 큰 극장에서와는 다르게 작은 무대에서 마이크 없이 울려퍼지는 목소리가 그렇게나 좋은지, 기악 연주자들의 끼들이 그렇게나 다재다능한지 알게 됐다. 자리에 함께한 초청 손님들 모두가 감동하고 즐거워했던 무대였다. 서종길 원장 자신이 음악을 좋아했던 것처럼 보다 많은 이들이 가요오페라단의 음악을 함께 즐겼으면 하는 마음이다.

Q 후원회장으로서 앞으로 해나가고 싶은 일들이 있으실까요? 끝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함께 전해주시죠.

멀리서 바라보다가 조금 가까이 다가간 것뿐입니다. 아직은 단순히 음악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대리만족하는 수준이지 주도적으로 이런 걸 해보겠다, 이러면 좋겠다 거창한 계획이나 생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오페라를 비롯한 음악을 폭넓게 배워가는 입장입니다. 같은 무대를 보고도 저와 옆의 친구의 평가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큰 틀에서는 우리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인재들이 같이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그 와중에서도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 지역 예술가나 연주자들이 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일이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함께 노력해야겠죠. 우리 가요오페라단과 가야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 모두가 힘든 와중에서도 서로 공지를 느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만이 가진 느낌이 있다. 음악 이야기를 할 때는 소년 같은 미소가 얼굴에 한껏 담기는 사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이 예술가와 연주자들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 애정과 사랑으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가치들을 만들어가는 사람... 미소 만큼이나 순수하고 사람 좋은 넉넉함을 지닌 서종길 원장이 있기에 김해가요오페라단과 가야심포니오케스트라가 함께 만들어갈 다음 무대가 더욱 기대가 된다.



시간이 멈추고

영원이 흐르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그런 순간이 있다

- 박노해 시인의 '걷는 독서' 중

그린란드 일루리샷트의 빙하 천국

PHOTO by 전강용

추억을 울리는 주파수,
음표로 가득 찬 공간

음악 감상실, 나만의 음악 세계에 빠져들다

그럴 때가 있다. 모든 감각이 멈추고, 어느 음악만이 귓전에 들어와 꽃힐 때. 우리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날의 추억을 떠올리고, 그때의 순수했던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에서 나머지 모든 감각을 닫고 오로지 청각만을 열어 음악을 듣는 것은 때로 사치일지 모른다. 하지만 음악을 통해 잊었던 자신을 찾을 수 있다면 기꺼이 사치를 선택해도 좋을 것이다.

여기, 음악을 듣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어 음악감상실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그곳에서 영혼의 주파수와 꼭 맞는 음악을 찾아서 들으며 다시 내일을 살아갈 힘을 충전하는 사람들. 그들이 찾는 음악감상실은 한적한 바닷가 앞 어느 호텔에 마련된 공간일 수도 있고, 40년 넘게 사람들의 추억이 켜켜이 쌓인 카페일 수도 있으며, 방대한 양의 LP를 골라 듣고 음악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는 곳일 수도 있다. 추억의 LP부터 디지털 음원까지, 오롯이 나와 음악만 존재하는 공간에서 소리의 매력에 푹 빠져볼 수 있는 곳, 경남의 음악감상실을 소개한다.



푸른 바닷가, 소리로 가득 찬 공간 남해 엘림마리나 앤 리조트 ‘아날로그홀’

푸른 바다를 마주하고 선 리조트 안에는 소리로 가득 찬 비밀스러운 공간 하나가 있다. 온통 디지털로 가득한 세상에 아날로그 감성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곳, 바로 남해 엘림마리나 앤 리조트 ‘아날로그홀’이다. 리조트 1층에 마련된 아날로그홀은 리조트 투숙객은 물론이고 오다가다 호기심에 찾아온 사람까지 누구나 편안하게 들어가 음악을 즐길 수 있다. 초기 진공관 아날로그 음향 시스템으로 듣는 음악이 궁금하다면, 아날로그홀을 찾아가 보자.

오래된 기계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음악

아날로그홀 문을 열고 들어서니 다른 음악감상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한눈에 봐도 연식이 있어 보이는 고풍스러운 음향기기들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이현건 대표가 10여 년 전부터 취미로 모은 음향 장비를 모아둔 공간이다. 2020년 6월 남해에 리조트를 건립하면서 인천 본점에 전시돼 있던 음향기기 중 일부인 40여 점을 가지고 내려와 아날로그홀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음향기기에 대한 관심으로 좋은 음향기기, 오래된 음향기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많이 수집해 놓은 음향기기로 좋은 음악을 혼자만 듣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음악은 나눠 듣는다고 믿는 게 아니니까요.”

추억의 소리를 찾아서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나팔 모양의 다양한 축음기들 사이에서 1925년에 만들어진 크레텐자 축음기가 눈에 들어왔다. 100년 전 그때의 모습 그대로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이렇게 오래된 축음기가 제대로 작동이나 할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음악을 들을 수 있는지 물었더니 김지훈 매니저가 직접 LP를 얹어 손으로 동력을 만들어 축음기 작동을 시작했다. 소리가 날까 걱정하던 마음도 잠시, 축음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LP 고유의 주파수가 귓전에 닿았다. 디지털 음악처럼 깨끗하진 않아도, 마치 옆에서 직접 연주하는 듯한 생생함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1900년대 초반 진공관으로 만들어진 아날로그 음향시스템으로 다양한 음악을 들으면서 LP와 디지털 음원의 차이도 느껴볼 수 있다. 단순히 오래되고 희귀한 음향 장비를 전시만 하는 곳이었다면 그냥 ‘박물관’이 되었겠지만, 이렇게 귀한 장비로 좋은 음악까지 들을 수 있어서 이곳은 ‘음악감상실’이 될 수 있었다.

“이곳은 누구나 와서 음악을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미 소리 애호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주기적으로 오셔서 몇 시간 동안 음악만 듣고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무료로 개방하니까 언제든 찾아오셔서 음악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낮선 소리 그리고 색다른 경험

아날로그홀에서 오래된 축음기로 음악을 듣고 200년 된 오르골 음악을 듣는다. 파이프 오르간을 직접 돌려 연주해 보는 색다른 체험을 할 수도 있다. 부모 세대에게는 추억여행이 되고, 아이들에게는 잘 알지 못했던 낯선 세상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어줄 것이다.

아날로그홀 옆에는 1900년대 빈티지 스피커와 오디오로 즐기는 150석 규모의 콘서트홀이 마련돼 있고, 야외 바다가 보이는 전시장에는 국내 최대의 모터사이클 전시장인 바이크 갤러리가 있다. 이런 특별한 공간구성 덕분에인지, 바이크를 타고 찾아와 아날로그홀에서 몇 시간이고 소리와 진동이 가득한 아날로그 음악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다.

요즘 노래를 옛날 스피커로 들으면 어떨까. 축음기가 내는 소리는 디지털 음원과 무엇이 다를까. 한 번쯤 색다른 음악을 듣고 싶다면 아날로그홀을 방문해 보자. 이곳에서는 얇은 비닐이 LP판을 굽으며 내는 소리를, 비늘과 철판이 부딪쳐 음을 내는 오르골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무엇보다 소리로 가득 찬 이 공간에서 오롯이 음악에만 집중해 볼 수 있어서, 노래를 들으며 추억을 꺼내 보기에 제격이다.

엘림마리나 앤 리조트 아날로그홀

문의. 055-876-6767 / www.elimmnr.co.kr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19

음악 낙원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뮤직 파라디소

창원 의창구에 자리 잡은 LP 음악감상실 ‘뮤직 파라디소(Music Paradiso)’에 가면 클래식 음악의 친절한 안내자를 만날 수 있다. 음악 낙원이라는 낯선 산에 오를 때,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을 안내하며 결국엔 스스로 오를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언젠가 그 길에서 색다른 음악의 길을 발견해 낼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심광도 대표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직은 음악이 어색한 사람도 음악이라는 낙원에 무사히 오를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준다.

음악 낙원에 오르는 길은 생각보다 험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려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비용을 따로 받지도 않으며 누구나 편한 시간에 와서 이용할 수 있다.

문을 열자마자 반기는 건 편하게 앉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소파와 책장 가득 뽁뽁하게 꽂힌 음반들이다. 그 수량을 물으니 LP가 1만 6000장, CD가 3,200장이란다. 대체 이렇게 많은 음반을 어디서 어떻게 구했을까. LP 판매 코너를 제외하고 나머지 음반들은 모두 심광도 대표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개인 소장’ 음반들이다. 고교 시절부터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던 심 대표는 지난 30년 동안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음반을 골라 구매해 왔다. 그의 지나온 삶과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이 음반들은 이제 뮤직 파라디소에서 모두를 위한 음악으로 재생된다.

심광도 대표는 오랫동안 증권사에서 숫자만 보고 일하다,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헤매던 때가 있었다. 그때 창원의 어느 음악감상실에서 일하면서 음악을 알려주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음악을 소개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됐다. “아무리 좋은 음향기기를 갖고 있어도 틀어줄 음악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저에게는 음반이 많이 있고, 이 음반을 저 혼자 들으면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LP는 들으면 들을수록 닳기는 합니다. 그래도 저 혼자서 LP가 다 닳을 만큼 들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가진 음반과 음악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음악 낙원, 음악 천국으로 가는 길

뮤직 파라디소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편안한 휴식처를 목표로 한다. 이쁜 사람들이 병원을 찾듯, 음악이 필요한 사람들이 음악감상실을 찾아 잠시나마 음악으로 힐링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누구나 와서 편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뮤직 파라디소는 다른 음악감상실처럼 음료를 팔지도, 따로 돈을 받지도 않는다. LP 판매와 뮤직지킴이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회비와 강사료, 원고료 등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신문에 3년 넘게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연재 내용을 모아 <뮤직 파라디소>란 제목의 영화속 클래식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기도 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도 회사 다닐 때에 비해 버는 돈은 많이 부족하지만, 음악이 함께 있으니 마음은 더 넉넉해졌다.

“행복해지는 데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공간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좋은 음악을 듣고, 무엇보다 좋은 음악을 안내해 줄 수 있어서 오히려 행복 지수는 훨씬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어요.”

뮤직 파라디소는 음악감상실로 문을 열기는 했지만, 음악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활동이 펼쳐지는 예술 공간이 되어주기도 한다. 지역 연극인들이 연습장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유튜브 콘서트장이 되어 주기도 하고 영화 감상회가 열리기도 했다. 앞으로 코로나 상황만 좋아진다면 지금보다 더 활용도 높은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



음악에 이야기를 더하다

심 대표가 추천하는 음악 감상 방법은 이 공간에 나 그리고 오로지 음악만이 있다고 생각하고 음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는 것.

“여기서는 다른 거 말고 음악에만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음악은 다 배경음악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음악을 들으며 책을 펴고, 휴대전화를 꺼내 뉴스를 보는 식이죠. 다른 것은 다 멈추고 음악 하나에만 집중해 본다면 그동안 들었던 음악과는 전혀 다른 음악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음악을 듣는 것도 좋다. 하지만 음악에 얽힌 이야기까지 듣고 나면 그 음악은 이제 세상에 하나뿐인 음악이 된다. 뮤직 파라디소의 모든 음반은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음악을 들으며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평소 듣던 음악도 전혀 새롭게 들릴 것이다.

“늘 듣던 음악을 듣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는 새로운 음악도 한번 들어보고, 다른 사람이 어떤 음악을 듣는지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즐길 수 있는 음악의 폭이 더욱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뮤직 파라디소

문의. 010-5577-9951

위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195번길 1



술뿐만 아니라 음악도 키텅이 됩니다

이곳은 칵테일 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LP 음악감상실이다. 좋은 사람들과 술 한 잔을 나누며 리퀘스트 용지에 듣고 싶은 음악을 적어 내면 지킴이가 LP판을 찾아 음악을 틀어준다. 바에 꽂혀 있는 LP판은 모두 3,000여 장 정도. 다른 음악감상실에 비해 양적으로는 적을지 모르지만 모두 손님들의 추억이 묻어 있는 소중한 음악들이다. 만약 LP가 없다면 디지털 음원을 찾아서라도 손님들이 듣고자 하는 음악은 모두 틀어주려고 노력한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나눠 듣고 싶은 마음이 소중하게 느껴져서다.

“저는 손님들이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갈 때까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음악을 틀고 있어요. 사실 밖에 나가면 걱정거리가 많은데, 여기서만은 음악만 생각하고 음악을 듣는 그 순간만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음악을 들으며 행복해하시니, 음악을 트는 저도 무척 행복합니다.”

그래서 해거름에서는 술만 키텅이 되는 게 아니라 음악도 키텅이 된다. 어떤 날은 리퀘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손님이 나갈 때까지 미처 음악을 다 틀어주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음악을 잘 기억해 뒀다가, 다음에 손님이 오면 환영의 인사로 키텅해 뒀던 곡을 튜다. 단골손님에 대한 예우이자, 그날 누려야 할 행복을 덜 누린 손님에게 두 배로 행복한 순간을 선물하고 싶어서다.

아버지가 아들과 손잡고 찾아오는 곳

창동에 사람들이 넘쳐나던 그때 그 시절,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는 해거름이 되면 자연스럽게 발길을 해거름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세월이 흘러 겉모습은 많이 낡았지만, 지금도 해거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 옛 추억을 찾고 싶어 방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LP 음악이 주는 정서가 좋아 일부러 멀리서 찾아오는 20-30대도 많다.

“아버지의 추억을 찾아 아들과 함께 오기도 하고, 할아버지와 손자까지 삼대가 같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신 분들은 하나같이 처음 모습 그대로라고 기뻐하시면서 그때 들으셨던 음악을 다시 찾곤 하죠.”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음악과 추억을 지키다 해거름

올해로 43년째, 같은 곳에서 사람들의 추억을 지키는 공간이 있다. 해거름 노을을 바라보며 듣는 음악처럼 진잔한 추억들이 켜켜이 쌓인 곳. 좋은 사람들과 칵테일 한 잔을 나누며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너를 위해 요청하고, 지킴이가 틀어주는 잔잔한 LP 음악에 저절로 행복이 차오르는 곳. 1979년 변화한 마산 창동의 중심에서 탄생해 창동이 쇠락을 거쳐 다시 부활하기까지 변함없이 한 자리에서 그때의 음악과 추억을 지키고 있는 해거름을 찾았다.

창원 마산합포구 창동의 오래된 골목을 따라가다 ‘해거름’이라 쓰인 낡은 간판 앞에 멈춰 섰다. 해거름의 ‘해’자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 ‘거름’만 반짝거렸고, 2층으로 오르는 층계에도 40년의 흔적이 엿보였다. 계단을 따라 조심스럽게 올라간 곳에서 고광무 지킴이를 만났다.

“이곳에 오셨던 모든 분들의 역사가 쌓여서 지금의 해거름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마음이 쌓여 있는 의미 있는 장소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추억을 잘 지켜줘야 해서 ‘지킴이’가 되기로 했습니다. 이 공간의 주인은 여러분들이고, 저는 그저 이곳을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해거름은 지난 1979년 문을 연 이래 지금까지 43년째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1대 사장이 28년을 운영했고, 지난 2008년 2대 고광무 지킴이가 이어받은 후 지금까지 15년째 운영 중이다. 사실 고광무 지킴이는 해거름의 단골손님이었다가 2대 사장이 됐다. 1대 사장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운영을 맡을 사람을 급하게 수색했고, 고광무 지킴이는 이 소식을 듣고 하루 만에 해거름을 이어받기로 했다.

“연락을 받은 날 친구와 창동을 걷다가 바닥에 떨어진 팸플릿을 우연히 봤어요. 그 어두운 골목에서 작은 글씨로 쓰인 팸플릿에서 ‘해거름’이란 단어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운명인가보다 생각하고 다음 날부터 바로 운영을 맡았습니다.”

그를 운명의 지킴이로 이끈 팸플릿은 지금도 해거름 입구에서 만날 수 있다.

그의 말대로 해거름은 처음 문을 열었을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 해거름 입구에 있는 1979년 오픈 당시의 사진과 비교해 봐도 달라진 점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딱 하나, 지킴이만 빼고 말이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사람들이 즐겨 듣는 음악도 다양해졌지만, 누군가는 남아 소중한 것들을 지켜줬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는데, 해거름이 바로 그렇다.

해거름

문의. 055-246-8822

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거리길 51-8



Mecenat News

2021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 공연실황 공개

경남메세나협회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2021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가
온라인으로 관객들과 만났다.



경남메세나협회는 도내 기업들의 활발한 메세나 활동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내 고장 기업사랑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협회는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자 <2021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를 무관중 공연으로 진행하고 공연 실황을 LG헬로비전 경남·가야방송과 YouTube 경남메세나협회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콘서트는 매년 예술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프로그램 구성으로 경남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브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프로그램 또한 알차게 구성되었다. 콘서트의 첫 문은 작곡가 김지만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시간의 정경'이 열었다. 이 곡은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이미지화하고 이를 다시 음악적으로 표현한 창작곡이다. 경남메세나협회의 위촉으로 탄생한 이 곡은 이번 콘서트에서 김인호 지휘자가 이끄는 창원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초연되었다. 이어 소프라노 이명주와 테너 김동순이 무대에 올라 G.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 중 '무제타의 왈츠', D. 쿠르티스의 '돌아오라 소렌토로' 등 가을밤에 어울리는 오페라 아리아와 가곡을 선보였다. 공연은 L. v. 베토벤의 '트리플 콘체르토'의 낭만적인 선율로 마무리되었다. 이 작품은 세 명의 독주자들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을 때 그 아름다움이 최고조에 달하는 작품으로 유명하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피아니스트 이주은, 바이올리니스트 김덕우, 첼리스트 최경은의 완벽한 호흡이 공연의 대미를 장식했다. 한편, 이 공연은 경남메세나협회가 민간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개최되었다.



Mecenat News



2021 경남메세나대상 천원식 작

메세나로 경남을 빛낸 별들의 축제 2021 경남메세나대회

한 해 동안 메세나 정신을 실천하며 예술 후원 활동에 참여한 경남의 메세나인들이 모였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든든히 예술 지원에 매진해온 기업과 개인 그리고 창의적 예술 활동을 통해 도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준 예술단체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응원이 쏟아졌다.



지난 11월 30일 창원 리베라컨벤션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된 2021 경남메세나대회는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따라 메세나 기업인과 예술단체 대표 그리고 유관기관장 등 90여 명만 참석하여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치러졌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계와 예술계가 모두 침체된 상황 속에서도 올해 경남메세나협회는 대기업 22개, 중소기업 154개 등 기업과 예술단체 175개 팀이 결연을 맺는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메세나 활동이 큰 역할을 하였기에 2021 경남메세나대회의 의미는 더욱 깊었다.

최충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무대의 조명이 꺼져버리는 등 안타까운 시간이 계속되었지만 비대면 공연 등의 새로운 방법을 통해 문화예술은 회복과 치유의 힘을 발휘하며 지역민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였다”면서

“앞으로도 경남메세나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슬기롭게 대응하며 지역 문화 발전과 기업의 성공 그리고 경남의 미래를 위해 더욱 매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하병필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축사를 통해 예술의 가치를 믿고 후원을 실천하는 메세나 기업들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하용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예술 활동을 이어가는 지역 예술단체를 격려했다.

2021 경남메세나대회에서 문화예술 지원으로 사회 공헌을 실천한 5개 기업과 1개 예술단체, 1명의 개인 그리고 2명의 예술영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축하공연에는 경남국악예술단 가인과 소리꾼 최용석이 무대에 올라 신명을 더했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의 하이라이트로 여겨졌던 머플러 교환 퍼포먼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하여 생략되었지만 동행하는 기업과 예술단체의 명단을 담은 대형 현수막이 대신 자리해 그 의미를 되새겼다.





대 상

화성지엔아이(주)

회장 김원철



지역 음악도들의 열정에 뜨겁게 공감하는 기업

화성지엔아이(주)는 국내 승강기 부품업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건설한 기업이다. 김원철 회장은 회사 창립 때부터 기업의 이윤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평소 클래식 음악 애호가인 그는 그 답을 '문화예술 후원'에서 찾았다. 문화예술 발전을 통해 지역민들의 삶의 격을 높이는 것이 지역사회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화성지엔아이(주)는 13년째 변함없이 <창원시청소년교향악단>을 후원하고 있다. 든든한 지원에 힘입어 창원시청소년교향악단의 단원들은 다양한 연주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아직은 미완의 '미생'이지만 후원에 힘입어 분명 오늘보다 내일 한 뼘 더 성장하여 우리 지역 문화예술계를 빛낼 별로 떠오를 것이라 믿기에 단원들에 대한 화성지엔아이(주)의 뜨거운 격려는 멈추지 않는다.

예술을 사랑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

이 밖에도 화성지엔아이(주)는 가곡전수관, 대한크로마하프연주협회 등 지역의 다양한 예술단체와 크고 작은 문화행사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 덕분에 화성지엔아이(주)가족들은 좋은 공연을 즐길 기회가 더 많아졌다. 경영에 문화를 접목하는 기업의 '문화경영' 실천으로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화성지엔아이(주) 직원들의 마음속에는 잔잔한 음악이 울려 퍼진다.

“ 활발한 메세나 활동으로
지역 예술의 미래를 키워내다 ”

메세나인상

이상호

산청양계영농조합법인 회장



예술이 된 농장

산청군 신안면에 위치한 산청양계영농 조합법인의 산골농장에는 사시사철 푸른 나무가 자라고 향긋한 꽃이 피어난다. 그리고 그 사이,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의 조형 작품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상호 회장은 기업과 문화는 함께 가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농장의 '예술화'를 꾀했다. 음악회를 열고, 사생대회를 개최하며 지역민들에게 농장의 문을 활짝 열었다. 2015년에는 '산청산골박물관'을 개관하여 미술작품, 도자기, 공예품을 전시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산청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의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이곳은 산골에서 만나는 뜻밖의 문화공간으로, 지역민의 편안한 쉼터이자 문화향유 공간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지역 문화를 지키는 힘

이상호 회장은 메세나 활동을 통해 지역의 소중한 문화예술 자산을 지킨다. 이에 산청의 전통문화인 산청매구를 지키고자 <산청매구보존회>를 13년 동안 변함없이 지원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진주목 문화사랑방>을 만들어 같은 문화권 내에 있는 지역민들과 문화를 공유하고 지역 문화 부흥을 위해 노력한다. 첫 사업으로 파리장서의 주역인 곽종석 선생을 기리는 '파리장서 기념탑'을 세웠고, 최근에는 진주 출신의 내고(乃古) 박생광 선생을 기리는 전시를 기획했다. 이처럼 이상호 회장은 보물을 캐내듯 지역의 숨은 역사와 문화예술을 캐내어 세상에 선보이며 메세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 기업과 문화는 함께 가는 것 ”

문화경영상

현대공영㈜
대표이사 진종신



창원시남성합창단, '현대공영'이라는 날개를 달다

현대공영(주)은 2014년부터 <창원시남성합창단>과 7년째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 합창단이 매년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해외 공연 등 연간 10회 이상의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현대공영(주)의 든든한 후원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덕분에 합창단은 지난 7년 동안 질적·양적 성장을 경험하며 지역민들에게 음악으로 힘과 위로를 전하고 있다.

화합과 상생의 정신을 기업 경영에 녹이다

진종신 대표이사는 합창에는 남을 배려하는 가운데 나를 표현하는 절제와 공존의 아름다움이 담겨있다고 말한다. 소통과 공감의 중요시되는 현대사회에 화합과 상생의 메시지를 전하는 합창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합창단과 함께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화합과 상생의 정신을 기업 경영에 녹여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며 발전하는 문화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문화공헌상

(주)대륙종합건설
대표이사 이치우



음악의 불모지 거창에 한 줄기 빛이 되다

경남의 끝에서 만날 수 있는 거창. 음악의 불모지로 여겨지는 이곳 거창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있다. 바로 거창지역 음악가들로 구성된 <거창윈드오케스트라>다. <거창윈드오케스트라>는 군민들에게 좋은 음악을 전하고 그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야심차게 설립되었다. 하지만 거창에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때 오케스트라에게 손을 내민 것이 바로 (주)대륙종합건설이다. 이치우 대표이사는 거창의 문화 부흥을 위해서 사업을 펼쳐나가는 오케스트라의 활동 취지에 공감하고 선뜻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

통 큰 후원으로 좋은 무대에 힘을 보태다

(주)대륙종합건설의 통 큰 후원에 힘입어 <거창윈드오케스트라>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단체의 에너지를 좋은 프로그램 기획과 연습에 모두 쏟은 결과 음악적 완성도가 높아졌고 지역 음악인 양성에도 힘이 되었다. 음악의 불모지였던 거창에 클래식이라는 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덕분에 군민들의 문화예술을 향한 갈증도 점차 해소되고 있다.

▶ 결연단체 거창윈드오케스트라 이견형 지휘자의 대리수상

Arts & Business상

푸주옥 대표 이석희 &
한국명시낭송가협회
대표 신승희



지역 대표 맛집 푸주옥, 받은 사랑을 나누다

하루를 밥심으로 든든하게 지켜주는 한 끼 보양식을 차려내는 푸주옥은 창원을 대표하는 맛집이다. 지역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고자 푸주옥은 메세나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푸주옥은 <한국명시낭송가협회>와 결연을 맺고 건조한 현대인들의 마음에 시로써 촉촉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7년에는 창원 구산면에 '쇼나 갤러리'를 오픈, 아프리카 전통 쇼나 작품 300여 점을 지역민들에게 선보여 시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시 낭송 불모지에서 시 낭송의 중심지로

2006년 창립한 <한국명시낭송가협회>는 시 낭송 보급 활동에 앞장서는 예술단체다. 문자 예술인 시를 소리 예술로 승화시키는 낭송가를 배출하고 낭송을 통해 따뜻한 감성을 나누고 있다. 푸주옥 이석희 대표는 시 낭송 수강생으로서 <한국명시낭송가협회>와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 보급을 위해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고 도움을 주고자 시작한 후원이 벌써 8년째다. 푸주옥의 짓는 따뜻한 밥 한 끼는 건강을 전하고 시 한 편이 주는 울림은 시민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하며 지친 현대인의 마음을 감싸 안는다.

문화예술영재상

김동원 서울예고 3학년 트럼펫
김규리 성지여고 3학년 미술



음악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

창원 출신의 김동원 학생은 절대음감은 물론 상대음감도 고루 갖춘 음악영재다. 누구보다 진지하게 음악을 대하는 김동원 학생은 <경남행복오케스트라>와 <경남필하모닉청소년관악단> 트럼펫 수석으로 활동하며 쌓은 음악적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구축하고자 오늘도 열심히 연습에 매진한다. 그 결과 각종 콩쿠르에서 명문대 선배들을 제치고 수상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며 성장해가고 있다. 김동원 학생은 이날 시상식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기상음악으로 친숙한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3악장을 연주하며 음악가로서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꿈꾸는 세상을 도화지에 담다

김규리 학생은 어려서부터 여러 대회를 통해 뛰어난 미술적 감각과 남다른 재능을 인정받았다. 잠시 미술가의 꿈을 접기도 했지만 최근 다시 꿈을 이루고자 붓을 들었다. 늦은 시작을 더 많은 노력으로 채워가고 있는 김규리 학생의 롤 모델은 코코 샤넬이다. 여성 디자이너로서의 편견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이뤄냈듯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언젠가는 코코 샤넬을 뛰어넘는 디자이너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다진다. 김규리 학생은 부모님께 선물하고 싶은 예쁜 집, 폭력이 사라진 학교의 모습을 도화지에 담는다. 도화지 속에 담은 꿈 꾸는 세상을 현실로 만들어갈 김규리 학생의 미래가 기대된다.

Mecenat News

경남 문화예술의 든든한 친구, LH 아트 프렌즈

경남메세나협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지난 8월, 'LH 아트 프렌즈'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경남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돕고자 하는 LH의 통 큰 후원에 힘입어 본 지원 사업은 3년째 지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남문화예술 = 'LH 아트 프렌즈'

올해 LH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활동 위기에 처한 지역 예술인들을 배려하여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였다. 공모를 통해 LH와 창의적 역량을 공유하며 함께 우정을 쌓아갈 12명의 아트 프렌즈들이 선정되었다.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도내 구석구석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펼치며 문화예술의 향기를 퍼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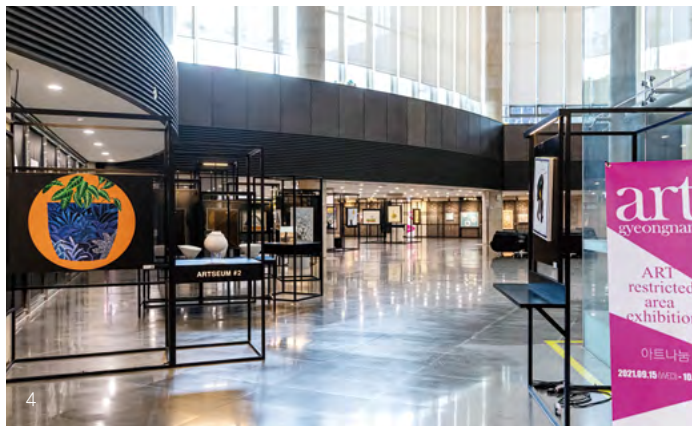
1 & 2 ____ "Let's Work, Let's WALK 展"에 참여한 퀼트공예 작가 김수덕과 옷칠회화 작가 이진숙

3 ____ 하이초등학교에서 열린 연극 <가시고기> 현장

4 ____ LH 아트 프렌즈 교류 협력 사업 'LH 아트나눔展'

문화예술이 회복의 촉매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LH 아트 프렌즈로 선정된 예술단체(인)들은 문화예술이 회복의 촉매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했다. <워킹>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활동이 위축된 전업 미술인과 함께하는 "Let's Work, Let's WALK 展"을 기획하여 지역 미술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극단 이루마>는 문화소외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극 공연을 선보였다. <아트경남>은 LH와의 교류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LH 본사 내 아트지움 공간에서 한 달간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을 LH 임직원은 물론 지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전시를 진행하기도 했다.



Mecenat News

경남메세나협회 문화나눔사업

경남메세나협회의 문화나눔사업이 올해도 경남 도내 곳곳에서 시행되어 도민들의 삶에 문화예술을 선물했다.

즐거운 나눔티켓

경남메세나협회는 아동 · 청소년 430여 명을 도내 곳곳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 행사에 초대했다. 10월에는 경남 고성군 내 어린이들에게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입장권을 제공하여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가을날의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11월에는 함안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뮤지컬 <하모니> 공연 티켓을 전달하였다. 이 공연에는 함안 큰샘원지역아동센터 소속 아동 · 청소년들이 초대되어 뮤지컬의 감동을 공유하였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진주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소속 청소년들에게는 극단현장의 연극<플라자 스위트>공연 티켓이 선물되었다.

1 ____ 제21회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 <한마음복지증진대회> 특별 공연

2 & 3 ____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스쿨 오브 樂> 나눔공연 현장스케치

행복한 나눔공연

줄줄이 취소되는 공연과 전시 소식에 아쉬움이 컸을 도민들을 위해 경남메세나협회가 지역 예술인들과 손을 잡고 도민들의 일상 속으로 다가갔다. 11월 말 경남메세나협회와 아트해빛은 수능을 치르느라 고생한 삼진고등학교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과 함께하는 스쿨 오브 樂>을 기획했다. 12월에는 공연장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우들을 위한 나눔공연을 실시하여 예술의 온기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다. 경남메세나협회는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도 다양한 형태의 문화나눔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문화나눔사업 신청 문의 055-285-5612



Mecenat News

경제-문화예술의 상생 발전, 부산메세나협회 공식 출범



지난 11월 13일, 부산의 기업과 문화예술의 상생 발전을 주도할 부산메세나협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초대 회장에는 동성그룹 백정호 회장이 추대되었다. 백 회장은 한국메세나협회 부회장, KBS교향악단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문화예술 진흥과 저변 확대에 기여해왔으며, 지속적 예술단체 후원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한국메세나대회에서 메세나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백정호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부산 기업과 예술단체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활성화하고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 국제아트센터 설립 등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도 기업들과 함께 힘을 보태겠다.”면서 “부산을 대한민국 대표 문화예술 도시로 성장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라는 포부를 전했다.

부산메세나협회는 앞으로 지역 기업의 예술단체 지원 활성화, 예술 후원 인식 확산을 위한 사업 등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업과 예술단체의 결연 지원, 지역·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나눔 사업, 미래세대를 위한 예술교육사업 등을 핵심 사업으로 정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부산의 기업 50여 곳이 협회 활동에 동참하기로 하였고, 부산시도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약속한 만큼 부산메세나협회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한국메세나협회와 경남메세나협회를 비롯, 제주와 세종시에도 메세나협회가 설립되어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은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내 광주시에서도 메세나협회가 설립될 예정이다. 메세나 사업의 전국적인 확산은 문화예술의 수도권 집중화 해소와 지역 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전국 메세나 네트워크 출범에도 큰 힘이 될 전망이다.



2022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

「2022 경남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사업이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과 경남메세나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 ARTS & BUSINESS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예술단체에 추가로 펀드교부금을 지원하는 Matching-Grant 프로그램이다.

2022 경남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 신청 안내

신청접수

1차 접수 | 2022년 2월 3일(목) ~ 25일(금) 18:00까지

2차 접수 |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고

※ 1차 접수에서 매칭펀드 교부금이 소진되는 경우

2차 접수는 시행하지 않음

신청자격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의한 특별법」 제2조의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기타

의료법인, 학교법인을 비롯한 각종 비영리법인과 국·공립 대학교 기업 및 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체 조직(친목단체 성격의 조직 제외) 공공기업의 지역본부 및 지사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업 등

예술단체

경남도내 소재하는 단체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임의단체, 창작활동 실적 및 지속성이 인정되는 예술단체 또는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행사 주관단체 및 문화예술 시설 등

결연형태

1 : 1 결연 | 1개의 기업이 1개 예술단체 지원

1 : 多 결연 | 1개의 기업이 다수의 예술단체 지원

多 : 1 결연 | 다수의 기업이 1개의 예술단체 지원

제출서류

기 업 | <매칭펀드 지원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예술단체 | <매칭펀드 지원신청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 지원계획서 및 신청서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심사기준

기 업 |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역량, 지속적 지원 가능 여부 등

예술단체 | 사업 추진 계획, 교류협력 활동 계획, 과거 활동실적 등

지원금액

기업지원금과 펀드교부금의 1:1 매칭을 기본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펀드교부금의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접 수

우 편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3층 경남메세나협회 사무국

이 메 일 | gnmecenat@gnmecenat.or.kr

문 의

(사)경남메세나협회 사무국 055)285-5611~3

모던 라이프와

컨템포러리 아트

김재환

경남도립미술관
학예연구사

직업 특성상 기회가 될 때마다 전시장을 쫓아다니는 게 일인지라, 기억에 남는 전시를 만나는 게 쉽지 않다. 그런데 얼마 전 대구미술관과 울산시립미술관에서 특이점이 있는 전시를 만나는 행운을 누렸다. 대구미술관에서는 《모던 라이프 Modern Life》가 울산시립미술관에서는 《포스트 네이처 : 친애하는 자연에게》가 그것이다. 이 두 전시는 작품의 성격이나 목적 그리고 전시 구성에서 판이하게 다르지만, 지금 한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전시 형식이라는 점에서 동일선상에 있다. 간단히 말해 하나는 모더니즘(Modernism) 전시이고 다른 하나는 컨템포러리 아트(Contemporary art)로 지칭되는 동시대 미술 전시다. 사실 역사적 배경만 놓고 보면 두 전시는 같은 하늘 아래 존재하는 게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지만, 우리는 이 두 전시를 동시에 경험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 동시대 미술은 이렇듯 시간과 공간의 이질성조차 한데 어우르는 묘한 매력을 가진 시대의 미술이다.

《모던 라이프 Modern Life》는 대구미술관이 프랑스 매그 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시로 모더니즘을 주제로 두 미술관의 소장품을 공동 연구하여 선별한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두 미술관의 소장품의 퀄리티가 뛰어난 결과겠지만 라인업이 화려하다. 알베르토 자코메티, 알렉산더 칼더, 마르크 샤갈, 장 뒤비페, 홀리오 곤살레스, 한스 아르통을 비롯해 광인식, 박서보, 서세옥, 유영국, 이건용,

이배, 이우환, 최영림 등 총 144점의 작품이 대구미술관 1층을 가득 채우고 있다.

전시실 입구에서 만날 수 있는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Woman of Venice III>(1956)와 최영림의 <얼굴>(1953), 그리고 장 뒤비페의 <Facts and reasons>(1976)은 ‘탈-형상화’를 주제로 하고 있지만 무너진 형상 속에서 오히려 삶의 온갖 아픔들을 느낄 수 있어 인상적이다. 길쭉하고 거친,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인물상은 폭력적인 세상에서 어떻게든 버티며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엿보인다. 이는 최영림의 <여인>에서도 마찬가지다. 형상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의 삶의 본질을 포착하려는 노력은 두 작가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요즘 전시는 어떤 사건이나 이슈를 중심으로 하거나 작품 자체보다는 작품의 주변에 배치된 맥락이 우선 고려되어, 전시를 보는 것 자체가 대단한 지적 노동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전시는 작품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유도하고 있어 확실히 직관적으로 작품 감상이 가능하다. 바로 이런 직관적 작품 감상은 모더니즘 계열 전시에서 추구하는 ‘미적 쾌’를 선사한다. 이러한 순간이 잘 구현되려면 관람객과 작품이 일대일로 만날 수 있도록 공간이 연출되어야 하기에 전시공간은 주로 화이트 큐브 형식을 취한다.

화이트 큐브는 지난 반세기 동안 현대미술의 보편적인 전시 방식이었다. 미술관은 일종의 제의적(祭儀的) 공간이 되어 성지순례의 장소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전시실에서는 조용하고 경건하게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하나의 에티켓으로 여겨지는 것도 바로 이런 화이트 큐브의 영향이다. 형식을 중요시하는



- 1 ____ 대구미술관 《모던 라이프》 전시전경 _ 알베르토 자코메티 작
- 2 ____ 대구미술관 《모던 라이프》 전시전경 _ 권오봉 작
- 3 ____ 울산시립미술관 《블랙 앤드 라이트 : 알도 탐벨리니》 전시전경
- 4 ____ 울산시립미술관 《포스트 네이처 : 친애하는 자연에게》 전시전경 _ 히토 슈타이얼 작

모더니즘 계열의 작품을 감상하는 태도 자체가 바로 ‘모던 라이프’이다. 관람객에게 이런 에티켓은 불편하지만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컨템포러리 아트 즉 동시대 미술이 전면화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한다. 동시대 미술은 완성된 미술작품 앞에 관람객이 수동적으로 놓이는 것이 아니라, 변화 가능한 상황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람객과 작품이 상호 소통하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 회화, 조각과 같은 전통적인 매체의 범위를 벗어나 영상, 설치, 퍼포먼스, 아카이브 등이 자연스레 결합해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예술로 변신한 것이다. 2022년 1월 6일 개관한 울산시립미술관은 이런 변화된 경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울산시립미술관 누리집에 따르면 미술관의 첫 번째 비전은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형 미술관’으로, 다양성, 전지구성(Globalization), 융합성, 실험성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그래서일까. 미술관 내부 공간은 과거 미술관의 실내와는 사뭇 달랐다. 전시공간과 로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기존 미술관에 비해 울산시립미술관의 로비와 전시실은 그 경계가 모호하다. 아직 이 모호한 경계를 적절하게 전시에 사용할 방법을 찾지 못해 어수선했던 느낌이지만, 아마도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나면 매우 흥미로운 전시 공간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싶다.

개관특별전으로 개최되고 있는 《포스트 네이처 : 친애하는 자연에게》는 동시대 미술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최첨단 미술관의 역량을 보여주려 노력한 흔적이 곳곳에서 보인다. 실감미디어아트 전용관인 XR 랩에서 열리고 있는 《블랙 앤드 라이트 : 알도 탐벨리니》 전시 역시 화이트 큐브를 넘어서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었다. 최근 실감미디어 아트가 유행하면서 끈질기게 살아남아 있는 ‘스펙터클’형 전시를 비판적으로 발전시키고자 기획된 이 전시는 ‘블랙’과 ‘라이트’라는 우주적 기원을 시각화함으로써 시청각적 쾌와 철학적 성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다.

《포스트 네이처 : 친애하는 자연에게》는 울산이라는 장소성, 21세기라는 현재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20세기 한국 산업의 전초기지라 할 수 있는 울산은 한국사회의 발 전에는 크게 기여했지만, 한 반도 나아가 지구 생태계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오명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다. 기후위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주요한 화두가 된 지금 ‘포스트 네이처’는 확실히 동시대 미술이 다뤄야할 주요한 키워드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 전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시의 개념과 개별 작가 작업의 맥락을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히토 슈타이얼의 <이것은 미래다>(2019)는 건축용 비계에 설치된 영상 작업으로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된 미래의 식물 이미지를 보여준다. 전시실에서는 전지전능한 시점의

내레이션과 터키의 한 감옥에서 몰래 약용 식물을 키우려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를 유심히 듣지 않으면 작품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살펴본 바처럼 대구미술관의 《모던 라이프 Modern Life》와 울산시립미술관의 《포스트 네이처 : 친애하는 자연에게》는 전시의 기원, 의도, 형식에서 모두 매우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동시대 미술의 맥락에서 보자면 《포스트 네이처 : 친애하는 자연에게》가 지금 여기서 가장 잘 어울리는 전시라 할 수 있지만, 미술관이라는 자체가 애초에 역사적인 오브제를 유물화해 현재의 상황 속에서 재해석하는 이질적 시공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모던 라이프 Modern Life》 역시 동시대 미술관스러운 전시다. 이렇게 화이트 큐브에 근거한 ‘모던’한 전시와 융합 및 관계성을 강조하는 ‘컨템포러리’한 전시를 우리는 미술관에서 동시에 만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맥락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두 유형의 전시에 이질감을 느껴 불편해할 필요없이 있는 그대로 즐기면 되지 않을까.



통영국제음악제

TIMF

VISION IN DIVERSITY

TONGYEO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2022

Un Suk Chin
Artistic Director

2022.3.25~4.3

Harry Partch-Veits Quintet·Ensemble TIMF-Novus Quartet·
King's Singers Cologne Chamber Orchestra·Truls Mork Partch
Ensemble·Magdalena Kozena-La Voce Strumentale·
Julia Lezhneva-KBS Symphony Orchestra·Yubee Kim·
Dazso Ranki-Heemoon Lee·Chaeyoung Park-Korean Chamber
Orchestra·Kwangchul Youn-Svetlin RoussevTedi Papavrami·TFO

www.timf.org

2021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 이성자미술관 1·2전시실
기획전시

2021.
12.21.

2022.
03.06.



이성자
: Esperanto
세계
공용어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와이즈발레단 VITA

2022. 4. 7. (목) 19:30 /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와이즈발레단이 주재만 안무가의 신작 <VITA>로 경남문화예술회관을 찾는다. 주재만 안무가는 1996년 프랑스 바느레 국제무용축제에서 최우수예술가상을 수상 후, 미국을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유명 안무가이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음악과 어우러지는 와이즈발레단의 역동적인 발레는 인간과 삶, 자연의 본질적인 관계를 형상화하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이다.



국립합창단 모차르트 레퀴엠

2022. 5. 4. (수) 19:30 /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라틴어로 안식을 의미하는 레퀴엠은 진혼곡으로 죽은 이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미사음악을 뜻한다. 모차르트는 총 12곡의 레퀴엠을 작곡했는데 특히 8번 라 크리모사(La crímosa, 눈물의 날)은 장엄하고 슬픈 선율로 극적 감정을 배가시킨다. 윤의중 예술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합창단인 국립합창단의 심도 있는 연주로 더욱 깊이를 더하여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ORIGINAL PRODUCTION BY VBW  VEREINIGTE BÜHNEN WIEN
a company of wienholding

완벽함을 넘어선 최고의 뮤지컬



DAS MUSICAL
레베카

A MUSICAL BY MICHAEL KUNZE & SYLVESTER LEVAY
DIRECTED BY ROBERT JOHANSON

REBECCA

2022. 5. 13.(Fri)~15.(Sun)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GYEONGNAM CULTURE & ART CENTER

Gyeongnam Mecenat Members

경남메세나 회원사

회장사

BNK경남은행

부회장사

남명산업개발㈜
NH농협은행 경남본부
㈜무학
㈜센트랄
우수AMS㈜
㈜인산가
임경숙
㈜한국아나세
㈜화인테크놀리지

이사사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
경원벤티크㈜
고성오광대보존회
창원대학교 음악과
창원상공회의소
㈜리베라관광개발
범한산업㈜
산골농장(산청양계영농조합)
신화철강㈜
원광건설㈜
㈜정일
㈜지엔티
청호환경산업㈜
한국민예총
한국예총경남도연합회
화성G&I㈜

회원사

가야BS㈜
가야오페라단
㈜강민종합건설
거제시문화예술회관
거제컨벤션웨딩뷔페
경남개발공사
경남스틸㈜
경남신문사
경남오페라단
경남자동차판매㈜
경원여객자동차㈜
㈜경한코리아
㈜고구려
고려이노테크
㈜고려철강
고운가이드치과병원
고운치과병원
광득건설㈜
광신기계공업㈜
㈜구구
㈜국제전기
㈜국토보상원
그랜드머큐어엠베서더 창원
그린산업㈜
그림갤러리㈜
㈜금강종합건설
㈜금술개발
㈜기산산업
김순태치과의원
(유)김해공영
김해상공회의소
낙우산업㈜
(주)남광디씨텍
남양매직㈜
뉴성운관광
늘푸른 요양병원
㈜다우링에너지
당당한방병원 김해
㈜대경
대경건설㈜
㈜대길티에프
㈜대동주택
대방스페셜스틸㈜
대선주조㈜
㈜대승엔지니어링
대신금속㈜
(합)대신전기공업사

대한전선전기㈜
㈜대호테크
the큰병원
㈜덕광중공업
㈜동구기업
동양특수금속㈜
㈜동오프랜지
㈜동은화학
두남화학
㈜두산중장비센터
디씨엠㈜
디케이아력㈜
라운산업개발㈜
마산정안과
㈜마창대교
명제한의원
몽고식품㈜
무림페이퍼㈜
문운수치과의원
미르치과의원
미조종합건설㈜
미즈맘 여성병원
범무법인미래로
㈜보덕건설
(제)봉림장학회
㈜부경
부곡스파디움
부산교통㈜
부성자동차학원
㈜부평디엔피
㈜북성산업
㈜사릭
사보이호텔
㈜산호수출포장
㈜삼보산업
삼우금속공업㈜
삼원동관㈜
㈜삼전건설
삼정기업
㈜삼정터빈
삼흥열처리
삼흥테크
상남굿모닝내과병원
상화도장개발
㈜서영시스템
선린자모의원
㈜성우
㈜성환금속

㈜세복
세아창원특수강
㈜세양정공
㈜세호테크
승진기계㈜
시영건설㈜
신광에이스전기㈜
신오포드시스템㈜
신창기계
㈜신한물산
㈜씨노텍
아진기계
㈜애드테크
㈜에스에이치아이
에이스브이
㈜에이스코트
에코시스템㈜
㈜엔지피
영광산업 주식회사
㈜영남엘피씨
㈜영신화공
㈜영일정공
㈜영진테크
㈜영창기업
㈜예술상점
에인여성병원
㈜오곡산업
오션커뮤니케이션즈
㈜옥산아이엠티
원광산업석재
원한의원
㈜웰템
유림건설㈜
윤한의원
의료법인복음의료재단
의료법인성림의료재단
의료법인진주의료재단
이레개발㈜
㈜이엔티
㈜이우
이피씨
인산죽염㈜
인화정공㈜
㈜장생도라지
㈜장성D.P.S
㈜장한
㈜정문애드테크
제일레스테크

㈜좋은콘서트
중앙건설㈜
㈜중앙금속
㈜지에스비
진해성모병원
창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청아의료재단
최석주정신건강의학과의원
최익수의원
추고쿠삼화페인트㈜
캠코 경남지역본부
케이조선
㈜코앞건설(참신한건설)
㈜코텍
쿠쿠홈시스㈜
태광실업㈜
태민산업㈜
태영엔지니어링
테라사이언스㈜
㈜포스텍
푸주옥
파케이벨브㈜
하이에어코리아㈜
한국남부발전하동빛드림본부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니전자㈜
한국정기공업㈜
한국제강㈜
한국지역난방공사김해지사
한국태양유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항공우주산업㈜
㈜한반도
㈜한창테크
㈜해동설계종합건축사
해성메탈㈜
현대공업㈜
㈜현대기업
㈜해동
㈜호텔인터내셔널
흥기종합건설㈜
㈜화영
화영철강㈜
화이트치과
현대로템
흥일기업㈜
STX엔진㈜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GYEONGNAM MECENAT

기업과 예술의 만남이 행복한 경남을 꽃피웁니다.
경남메세나협회는 정부가 인증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입니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 Arts & Business

결연사업_기업과 예술단체의 1:1 결연을 통해 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고, 예술단체는 안정된 창작활동을 보장받습니다.

예술단체 워크숍_도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경영 및 회계실무 워크숍을 실시하여 기획 및 단체 운영 능력 향상을 돕습니다.

회원사 지원 사업 Cooperation

찾아가는 공연_기업의 문화경영 활성화를 위해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공연_전시를 기획하고 기업 내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을 지원합니다.

문화감각/문화경영도서_회원사에 우수문화공연 관람티켓 및 문화경영 도서를 전달합니다.

지정기탁_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업후원금을 지정 예술단체에 전달하고 기업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문화 나눔 사업 Sharing Art

행복한 나눔공연_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찾아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이웃의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즐거운 나눔티켓_도내 어린이과 청소년에게 유익한 공연과 전시 관람 티켓을 제공하여 정서함양을 돕고 문화적 격차를 해소합니다.

연구 및 홍보사업 Development

홍보지 '메세나지' 발간_협회 홍보지를 연2회 발간하여 경남메세나의 사업을 소개하고 기업의 메세나 활동과 지역 문화예술 소식을 전합니다.

경남메세나포럼_회원사 실무진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제공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문화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지역문화특화사업_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콘텐츠를 지원하여 경남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합니다.

찾아가는 메세나_경남의 18개 시·군을 찾아가 문화협력협약을 체결하고 예술영재 장학금 수여 및 지역민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연구보고서 발간_경남의 기업 메세나 활동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합니다.

홍보대사 위촉_경남메세나협회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을 응원합니다. (1대 홍보대사 금난새 / 2대 홍보대사 홍지민)

경남메세나대회 Gyeongnam Mecenat Awards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_지난 1년간의 메세나 활동을 되돌아보고,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한 기업과 문화예술인이 만나는 축제의 장입니다.

경남메세나대상_경제와 예술의 균형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에게 고마움을 담아 공로를 시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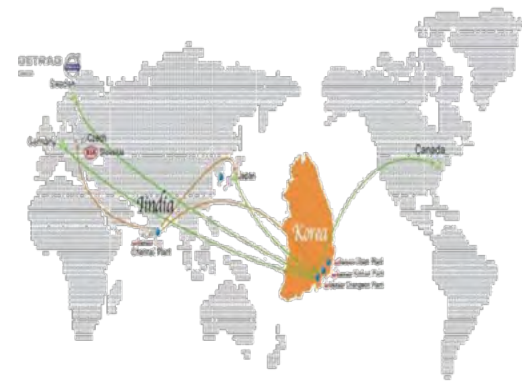
문화예술후원매개 사업 ART IS TREE

기업사랑메세나콘서트_경남메세나협회의 대중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소통과 화합의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WOOSU AMS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개척 합니다



WOOSU AMS

창원 본사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림로 62(신촌동 192-4)



하동알프스레포츠(주)
Hadong Alps Leports



하동알프스레포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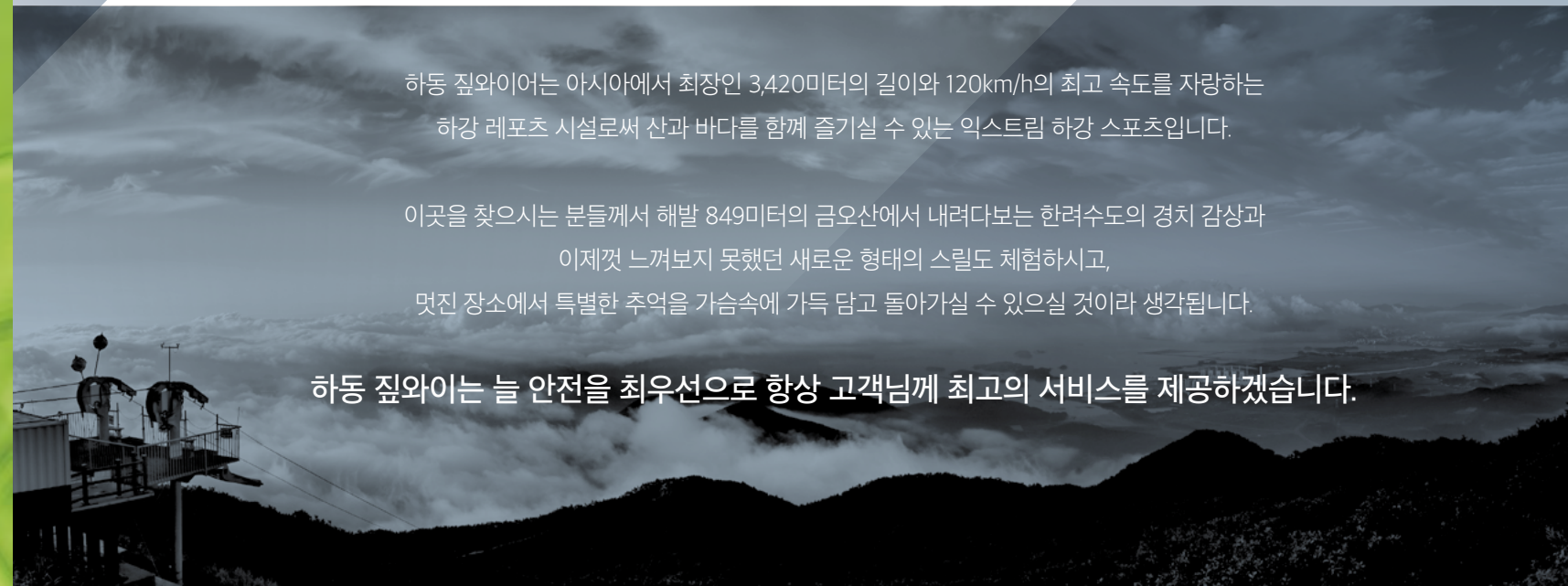
하동 짚와이어 | 하동 빅스윙

아시아 최장, 자연과 동화되는
하동알프스레포츠 Zip-wire

하동 짚와이어는 아시아에서 최장인 3,420미터의 길이와 120km/h의 최고 속도를 자랑하는
하강 레포츠 시설로써 산과 바다를 함께 즐기실 수 있는 익스트림 하강 스포츠입니다.

이곳을 찾으시는 분들께서 해발 849미터의 금오산에서 내려다보는 한려수도의 경치 감상과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스릴도 체험하시고,
멋진 장소에서 특별한 추억을 가슴속에 가득 담고 돌아가실 수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동 짚와이어는 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항상 고객님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경남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493-37(중평리 763) TEL. 055.884.7715~4 www.hdalps.or.kr

Vision to the Future!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비전으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기업
(주)한국야나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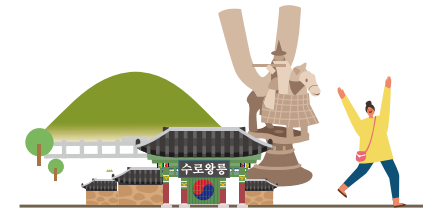
KY (주)한국야나세
KOREA YANASE Co.,Ltd.

본사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미더덕로 64
T. 055-271-0785 / F. 055-271-0786 / Mail. yanase@koreayanase.co.kr Home. www.koreayanase.co.kr

통영조선소 | 통영시 서송정길 48
T. 055-643-3060 / F. 055-643-3064 / Mail. sales@kyship.co.kr Home. www.kyship.co.kr

행복한 **경남**을 바라는 **경남은행**의 마음

당신이 웃으면 경남도 웃습니다
경남의 행복 중심에 언제나 경남은행이 있습니다



BNK 경남은행

창원우체국

요금별납

사랑받는 기업, 행복한 사회 메세나가 함께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가치있는 나눔을 실천하며
예술이 세상과 만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줍니다.
메세나 기업의 나눔 덕분에 세상은 매일 조금씩 더 아름다워집니다.

경남메세나협회와 함께하시면



MECENAT
with you



-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문화경영 컨설팅 서비스 제공



- 문화마케팅 · 세미나 등을 통한 기업의 창조경영 및 문화경영 지원



- 도내 우수 공연 및 전시 등 문화프로그램 지원 및 초청



- 경남메세나지 및 언론을 통한 회원기업의 메세나 활동 홍보



경남메세나협회는 공익성 기부 대상단체입니다.
문화예술후원금 및 회비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드리며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